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5
SPRING
VOL.54



봄 초대석

믿음의 3代 오동곤 장로 가정,
곽승현 위임목사를 만나다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

2025 해외선교 특집

우간다, 잠비아, 캄보디아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김남권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김남권

· 계간 『시와징후』 발행인
· 이어도문학상 대상, 비평문학상 수상
· KBS 창작동요제 노랫말 우수상 등

C O N T E N T S

Kwangsung Special

- 06 **사뉘갸에 심은 나무** | 김지유
훗날을 보장하는 일상
- 08 **봄 초대석** | 믿음의 3代 오동곤 장로 가정,
곽승현 위임목사를 만나다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
- 13 **2024 선한 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 14 **선교지 소식** | 노옥실
조선선교교회
- 16 **The 희망나눔** | 강길원 중등부 청년 교사
탕자, 교사로 다시 서다

Issues & Trend

- 19 **행복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 최광현
- 22 **나에게 가족은 보약이며
부작용 없는 항암제**
| 김성욱

꿈꾸는 다음세대

- 38 **꿈담** | 유아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유아부
- 39 **꿈담** | 초등3부
하나님 사랑으로 자라가는 초등 3부
- 40 **꿈담** | 중등부
중등부 학생선교사
- 42 **꿈담** | 고등부
김창석 고등부 부장 인터뷰
- 66 **HOT ISSUE** | 김다빈
꽃피는 꿈, 피어나는 믿음
- 68 **Turn on love** | 조희성
올해 빛청년부의 섬김

2025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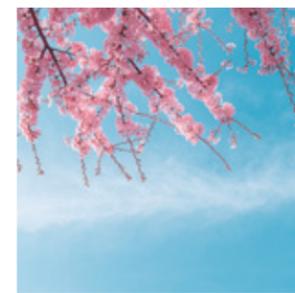
- 44 **한국교회와 여성** ② | 임희국
초창기 기독교여성들의 자의식,
성경을 통한 새 삶, 학교 교육

문화 & 참여마당

- 76 **갤러리** | 김세린
사소한 증명
- 77 **우리 교회 뮤지션** | 김종철
베이스 기타, 깊이를 더하는 매력
- 78 **명수필 산책** | 김유정 『길』
자기만의 길, 운명
- 80 **여행** | 고예님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파주 헤이리 마을
- 82 **광성의 추억 속으로** ② | 김진옥
나의 사랑 『광성겨자씨』
- 83 **독자 사진 이벤트** | 박정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크로스로드

- 84 **크로스로드** | 손민준
One Korea Crew 새꿈터
자립 준비 청소년 지원



표지 사진
정기수

겨자씨.

2025 SPRING
VOL.54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훗날을 보장하는 일상

글 김지유 목사(메시지처치)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_찰스 존스

나의 5년 후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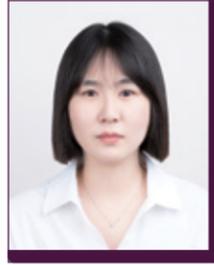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 중 둘은 희망을 포기한 채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이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눅 24:36). 예수님을 만난 그 길 위에서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목적지가 아닌 길 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이 끝나면 / 어려운 형편이 풀리면 / 시험이 끝나면 / 아이를 키워놓고 나면 / 꿈을 이루고 나면...

이런 전제조건들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없습니다. 목표 지향적으로 살되, 그 길에서 또는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과로 증명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 '생활', 즉 '생활'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상이 시작되는 날'에 부활하셨고(눅 24:1), 가장 사적인 일상의 자리인 '식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눅 24:30). 이렇듯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 구석구석에서, 삶의 과정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눅 24:32). 자신들의 전부를 바쳤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삶의 모든 소망을 잃고 마음이 냉랭해졌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죽은 기록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기에,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을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독교 서적들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성경은 잘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담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 3:16)이기에, NIV성경은 이를 'All Scripture is God-breathed'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입김을 불어 넣어 흠이 생령이 된 것 같이(창 2:7) 성경은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히 4:12).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가득하던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딤후 3:17). 성경을 가까이할 때, 우리 인생은 멋지게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의 행보를 묵상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 삶에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가까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5년 후 우리의 모습이, 먼 훗날의 우리 모습이 순전하고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 SPRING
Kwangsung Special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13>

본
초
대
서



믿음의 3代 오동곤 장로 가정,
곽승현 위임목사를 만나다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

글 임보미 기자 사진 전영의 기자

믿음의 1세대로 신앙의 든든한 선배이자 모델인 부모와 청년부를 거쳐 장년부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2세대 자녀 가정, 귀여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3세대 손자 손녀들까지, 가족 모두가 “예수 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3대를 이룬 가정은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아름다운 믿음의 3대 가정인 오동곤 장로 가족(1대 오동곤 장로, 2대 오승효, 오문천 집사 가정, 오정후 청년, 3대 오시후, 오연후, 오건후, 오윤후, 홍은하, 오정후 어린이)이 곽승현 위임목사를 만나 대를 이어가는 믿음과 성경적 가정의 모습, 궁금한 성경 이야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Q 목사님도 믿음의 3대를 이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믿음이 시험 당하는 환경에 놓여 보셨던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이겨 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집안은 아버지께서 신앙의 1대가 되시고 제가 2대, 그리고 제 자녀들이 3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자 할아버지가 당시 7살이었던 아버지를 업고 제주도로 가셨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웃집 권사님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25세에 당시 19세였던 저의 어머니를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4남 1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었던 누나가 사고로 병을 얻고 열네 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큰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 내셨습니다.

Q 목사님, 혹은 부모님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원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중요한 것 하나는 다름 아닌 '정기적인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아침이면 늘 어김없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항상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예배의 습관이 저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졌고, 오늘날 저의 가정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원텐텐가정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의 기본기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장(場)이 바로 가정예배이기 때문에 신앙 전수가 어려운 오늘날, 가정예배는 자손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영적 도구라 생각합니다.



※ 오동곤 장로 가정을 만나, 3대를 이어온 신앙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운 곽승현 위임목사

▽ 오동곤 장로와 1남 2녀, 그리고 두 딸이 낳은 여섯 자녀

Q 가장 작은 규모의 교회인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천국과 같은 우리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족들 간에 신앙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정서적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겠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미리 약속한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식사나 영화 관람 등을 함께하고, 대화하며 가족 간의 친밀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특별한 날(생일, 졸업, 입학 등)은 꼭 기억해서 선물을 전해주고 함께 축하하며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Q 믿음의 3대를 이룬 가정들에 1대, 2대, 3대의 역할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1대는 개척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저의 집안에서 믿음의 1대는 저의 아버지인데요,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 문화나 사머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시다가 전도를 받아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으며 믿음의 1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나 친척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자녀 세대에 신앙을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1대는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묵묵히 견디며 신앙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1대가 받았던 고난의 열매는 믿음의 2대들이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2대는 안정기에 속합니다. 믿음의 2대들은 1대가 세워놓은 신앙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믿음의 3대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되지 않으면, 마치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했던 장로들이 없어진 후 다음세대가 혼란해진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3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환경과 조건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자칫 수동적이거나 관망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에 의한 신앙이 아닌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청년부 목사님이실 때 찬양팀을 인도하시던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침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찬양, 혹은 출근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찬양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를 섬길 때에 비저너리 찬양팀을 2년 인도했고, 장년사역을 할 때에는 주일 저녁 예배에서 다드림 찬양단을 2년 정도 섬기며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신년 온종일 찬양기도회를 통해 여전히 찬양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찬양으로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라는 곡을 추천합니다.

Q '원텐텐가정예배' 가이드북으로 영유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정 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원텐텐가정예배팀이 함께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가족의 연령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하나의 예배 샘플 가이드북으로 전 연령대를 아우르기가 쉽지 않고, 가정의 상황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텐텐가정예배팀과 공동연구소가 보다 더 잘 연계해서 연령에 따른 원텐텐가정예배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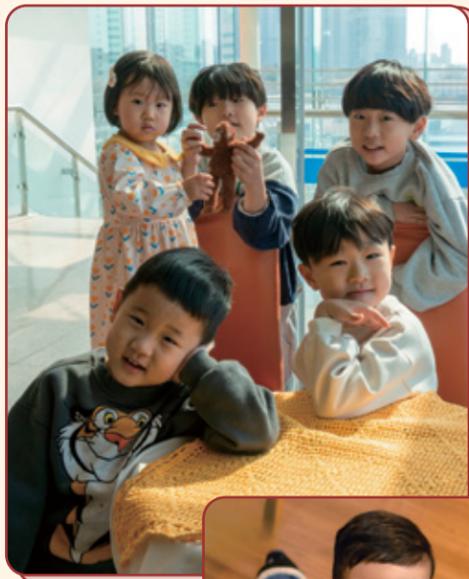


시후, 연후, 건후, 율후, 은하, 정후의 질문

Q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자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 말고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좋은 질문을 해주었네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하와를 만드셨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만나 결혼을 한 여자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형벌로 집에서 쫓겨나게 될 때 성경에 가인이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창 4:14) 이 사람들은 또한 누구일까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932세까지 살고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다(창 5:4). 아담이 932세를 살면서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지, 가인과 아벨만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도 이미 여러 자녀들을 낳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여러 자녀들이 이미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에(창 4:16) 가인이 여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고, 가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 오동근 장로 손주들, 가장 큰 형님 11살 시후부터 3세인 막내 정후까지 총 집합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4 선한 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거룩한빛광성교회 성탄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역



2024 선한 사마리아인 성탄절 프로젝트

플로잉데이를 통해 성탄절 헌금 전액(1억 2903만 1523원)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흘러 보냈습니다.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성탄절 헌금을 흘러보낼 대상자를 지정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해피월드 통해 지원 8,770,500원	
	다문화		
	노인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지원 10,560,000원	
	비밀언덕		
	해외선교		해외선교사 지원 7,797,000원
	환우		환우가정 지원 5,249,600원
지역 교회	지역 교회 지원 3,100,000원		
교인 지정		14,640,000원	
부서, 선교사, 형제교회 지정		12,070,000원	
타교회, 타교인 지정		14,063,000원	
금후구제 사역		52,781,423원	
합계		129,031,523원	

거룩한빛광성교회 1호 통일선교사로 파송 받다 조선선교교회(朝鮮宣交教會)

글 노옥실 목사(조선선교교회 담임)



조선선교교회 입당 감사예배(2023년 11월 17일)

조선선교교회 3대 비전

- 1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는 조선선교교회
- 2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조선선교교회
- 3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조선선교교회

조선선교교회 4대 목표

- 1 북한 땅에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조선선교교회
- 2 아둘람공동체를 꿈꾸는 조선선교교회
- 3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있는 조선선교교회
- 4 거룩한 성령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는 조선선교교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1650 조선선교교회 전경



☞ 강원도 앞바다. 쌀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 밀물 때 띄우면 썰물 때 해류를 따라 북으로 흘러간다. 탈북민 중 실제 그 쌀을 건져 먹은 이도 있다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통일선교사로 파송 받은 노옥실 목사입니다. 저는 20년 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그날, 고향 북한에 '예수 복음을 전하리라'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뱀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에 의지해 2023년 11월 26일 강원도 홍천에 '조선선교교회(朝鮮宣交教會)'를 개척했고, 2024년 11월 17일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 강원도 홍천 원룸에서 드린 조선선교교회 개척 예배

현재 저와 조선선교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통일을 위해 연합하는 파주·고양·고성·춘천·인제·홍천 지역에서 연합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 가정교회와 홍천 거주 통일민 성도들과 가족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설 명절 때 고향으로 갈 수 없는 북녘에 가족을 둔 통일민과 남한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육지로는 북에 갈 수 없지만 바다 물길이 북으로 열려 올라가는 때에 맞추어 페트병에 쌀을 넣어 보내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또한 춘천 교도소 사역을 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 조선선교교회 첫 성탄 축하예배 드리던 날

앞으로 저와 조선선교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북한 땅에 무너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있는 아둘람공동체를 꿈꾸며 거룩한 성령의 불쏘시개로 쓰임 받는 조선선교교회와 거룩한빛광성교회 1호 통일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탕자, 교사로 다시 서다 강길원 중등부 청년 교사

글 전영숙 기자



» 중등부 교사들이 함께한 부활절 성극을 마치고 나서, 맨 뒷줄 가운데가 강길원 교사

언제부터인가 중등부, 고등부에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교사로 섬기겠다고 자청하고 온 청년들의 손길이 예배실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 강길원 청년 교사가 있다. 환하게 웃는 그와의 만남은 봄 햇살 같은 싱그러움으로 가득했다.

“공석이던 중등부 총무 자리를 맡고 있기는 한데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도 미궁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내 차례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강 교사는 우리 교회의 밤가시 시절, 한나레유치원을 다녔고 중·고등부를 거쳐 대학부까지 출석했던 모태신앙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방향의 시기가 그에게도 찾아왔다. 군 생활을 하면서 아예 신앙과는 멀어졌던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대학교 기독교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 놓으셨다. 복학 후 룸메이트가 기독교동아리에 가고 싶은데 혹여 신천지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같이 가 보자고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것. 이를 계기로 2018년 가을, 드디어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되었고 2019년부터는 중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붙잡아 주는 이들이 함께했다.

“교회에 다시 출석하면서 동기였던 오세진이 조심스레 중등부를 섬겨보지 않겠냐고 권했어요. 처음엔 내가 아이들에게 과연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 주저했는데, 세진이가 그렇지 않다면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등부를 3년간 섬기다가 대학원 진학으로 바빠지면서 잠시 떠나기도 했으나 지난 2024년 다시 돌아와 공석이던 총무 자리를 기꺼이 담당하기로 했다. 3학년 담임도 동시에 맡았다. 그런데 몸이 힘들다기보다 고민이 많이 늘었다. 처음 교사를 할 땐 아이들과 동화되어

함께 놀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통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보다 예전의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단다.

“솔직히 제가 학생이었을 때 중장년 선생님들은 집에서 밥도 해주시면서 저희를 챙겼고, 청년 선생님들은 라페 가서 저희와 놀아주셨는데, 청년 선생님들과의 기억이 더 남아있는걸요. 요즘 취업 준비로 반 아이들을 많이 못 챙겨서 미안할 뿐이에요.” 그에게도 세월이 비켜가지는 않은 듯. 게다가 이제 앞자리가 ‘3’으로 바뀌면서 20대 초반의 청년 교사와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말수가 적어지면 그때문인가 싶기도 하다고. 하지만 이에 굴할 강 교사가 아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 걸고, 함께 하려고 노력할 생각이다. 그래도 자신이 학생 때 드렸던 예배가 더 예배드렸더라면, 지금은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 많이 온다는 느낌이 들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란다.

“중등부 인원이 많다 보니 현재 교사도 수적으로 많기는 해요. 하지만 돕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 삶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가 교사를 시작할 때라서 그런지 봉사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만함이 있어요. 나만 알기 아까운 이 기쁨을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강 교사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다. 한국 청소년 중 교회에 다니는 비율은 3%이고,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도 장로교는 20% 미만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세대를 양육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고등부에 늘어나고 있는 청년 교사가 더 귀한지 모르겠다.



» 2025년 동계수련회 홍보를 위해 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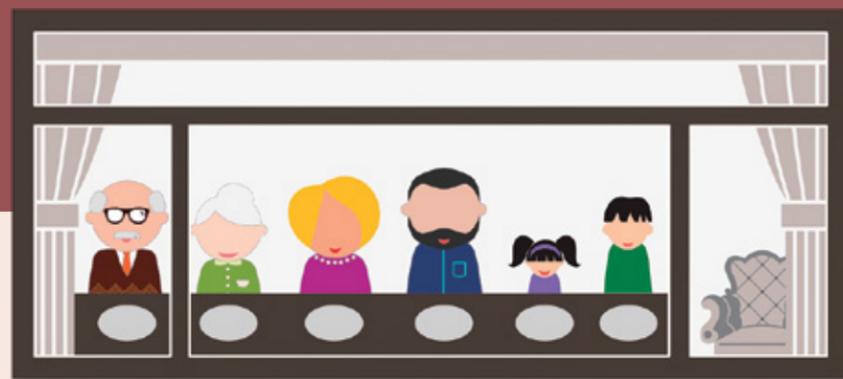


그가 바라는 교사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는 아이들과 일상을 함께하고자 한다. 주일이 아니어도 언제든 만나 진학 상담을 하거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중등부 일에 깊이 참여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서 교사들 간의 화합에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임원으로 처음 치르게 되는 동계수련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는 무서움(?)에 떨고 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도 알게 되리라. 그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셨듯이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 중등부 청년 교사들과 친목을 다지며

ISSUES & TREND

가족



I 행복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글 최광현

II 나에게 가족은 보약이며 부작용 없는 항암제

글 김성옥

행복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글 최광현 교수(한세대 심리상담대학원)



저서
『가족의 두 얼굴』, 『가족의 발견』, 『가족공부』



☆ 가끔씩 가족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가족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다. 하지만 마냥 따뜻하고 편하게 마주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항상 곁에 있지만 혼자일 때보다 더 등이 시리고 가슴에 구멍 난 것처럼 외롭게 만드는 것도 가족이다. 요즘 ‘찰떡같이’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가족관계가 얼마나 될까?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한없이 미워지는’ 것이 가족인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우리에게 ‘마지막 안식처이자 피난처’이다.

뜻하지 않던 퇴직과 파산 등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 중 절망감과 무기력,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다고 말한다. 가족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가족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다.

가족은 우리에게 언제나 양가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따뜻함과 단단한 소속감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아픈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수많은 상처를 겪게 되고 나름대로 해소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더 아프고 독성이 깊다. 가족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 때문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행복한 가족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족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하며 한 가지만 어긋나더라도 나머지 요소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만큼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상담하던 한 여성이 “교수님, 정말 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전혀 말이 안 통할 때예요.” 이 말에 나는 깊이 공감이 되었다. 우리가 진짜로 외로

울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가족끼리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을 날카롭게 공격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 가족 밖인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가족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올라온 부정적인 감정을 서로 마주 대하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될 수 있다.

속상함, 짜증, 외로움, 슬픔이라는 감정이 공감 또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면 기쁨의 감정이 만들어진다.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 감정을 연금술적인 변형을 가져다주는 '현자의 돌'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다. 마음을 긴장시키고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 부정적 감정들은 공감을 만나게 되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감정인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가족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더 많다. 가족이라도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통 인간은 나와 똑같이 타인도 느끼고, 생각하고, 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되는 순간, 같은 시선으로 문제를 보며 같이 행동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다. 서로의 차이를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왜 이렇게 나랑 달라?" 하지 않고 "상대와 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항상 부딪히는 그 지점,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다. 그 상처와 관련된 문제를 배우자가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일부분 이해할 수 있을

✧ 가족은 '마지막 안식처이자 피난처'



뿐인데, '도대체 왜 저러지?' 하고 계속 의문을 던져봐야 거리만 아득하게 멀어진 다. 다만 상대방 삶의 배경과 환경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유독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상대가 왜 끊임없이 유사한 행동 패턴을 유지하는지' 다 알지 못해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공감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보고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아이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이해가 안 되면 아이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최악의 나쁜 부모는 방임, 학대하는 부모만이 아니다. 적어도 이들 부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나쁜 부모는 바로 전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 부모이다. 이런 부모는 오직 자기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아이를 전혀 공감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부모이다.

공감이란 마음의 상처에 붕대를 감는 일이다. 공감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감에는 '말'을 통한 공감과 '몸'을 통한 공감이 있는데, 특히 부부에게는 서로 몸을 마사지해준다든가 손을 잡고 있다가 하는 공감 훈련이 좋다. 실제 부부관계가 힘들어 상담하러 오는 이들에게 '하루에 5~10분씩 손만 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꽤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백 마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등을 살짝 어루만져줘도 마음이 가라앉고 녹기 마련이다.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아이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 부부나 자녀, 또는 부모 모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공감하게 된다면 매일매일의 가족의 행복은 유지될 수 있다.



✧ 하루에 5~10분 정도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

✧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서로를 공감하게 된다



나에게 가족은 보약이며 부작용 없는 항암제

글 김성옥 장로



2024년 성탄절에 유아세례 받은 손주 하담이를 축복하며 한자리에 모인 가족

항암 약을 먹기 전 기도할 때면 놀다가도 달려와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손녀

‘당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저는 사랑, 행복, 희망, 평안 등 따뜻한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가족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2016년,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신 이후로는 아버지의 빈 자리로 인해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의 여자 친구가 찾아와 인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 아들이 결혼하고 지금은 손녀와 손자까지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첫 손녀가 태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날마다 웃음꽃이 우리 가족들의 보금자리에 머무르던 21년 12월 말, 건강검진에서 직장암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대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방사선 치료와 경구용 항암제 복용, 그리고 수술과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치료의 시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한마음으로 힘을 주었지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조막손 손녀딸이었습니다. 당시 18개월 된 손녀가 저에게 보내준 사랑은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으며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때부터 저에게 가족의 의미는 사랑과 희망을 넘어 생명이요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절망적인 의사 판정에 하나님께 처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주하, 어린이집 데리고 다닐 때까지만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로 ‘유치원 다닐 때까지 연장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주하가 더 큰 모습이 보고 싶어서 ‘주하가 학교 다닐 때까지 조금만 더 가족 곁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치료받는 가운데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 버티야 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약한 아빠와 남편이었지만 정말 필요할 때 아빠의 용기와 힘이, 할아버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치료받자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독한 항암제가 제 몸에 들어와서 치료제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영양제가 되게 주세요.”라고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손녀딸도 놀다가도 얼른 두 손을 모으곤 같이 기도하고 이때부터 유난히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가도 엄마 아빠가 밖에 있어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할아버지 빨리 나오라며 울고, 병원에 입원하면 할아버지한테 데려다 달라고 울며 떼를 썼는데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보약이며 사랑의 항암제였습니다.



38년 동안 새벽예배 중을 치셨던 아버지. 농번기가 되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논밭으로 일하러 가기도 했다

저 녀석을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사랑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같은 말이지만 기도가 바뀌어 갔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작은 아이가 기도하는 조막손 보이시죠? 제 기도는 응답 안 하셔도 저 아이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그

리고 항암제가 부작용 없이 영양제가 되고 비타민이 되고 치료제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주하의 기도와 가족의, 그리고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대장암은 90%, 직장암은 100% 방사선과 경구용 항암제로 치료가 되어버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장암은 발원지이기 때문에 수술하자고 해서 수술을 통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지금은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35차 항암을 하게 되는데 항암을 잘하는 것은 중보자들과 가족의 기도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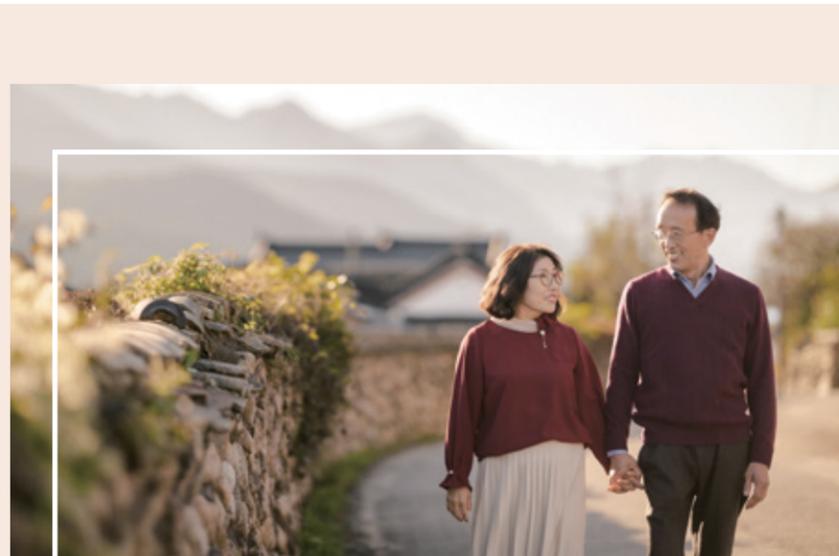
제 건강을 떠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서두에 인격적으로 가장 존경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했듯이 아들이 장가를 갔을 때저도 아버지 같은 시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며느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주었지만 아마 아버지가 주셨던 며느리 사랑의 10%도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먼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이때부터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손녀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며느리를 사랑하게 해 주세요. /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세요. /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성도와 교역자를 섬기며 사랑하게 해 주세요. / 하나님, 저도 아버지처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저에게 가족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으며, 저에게 가족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었으며, 저에게 가족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은 것이었으며, 저에게 가족은 사랑과 기도의 빛을 진 구성원이었습니다.

이젠 가족에게 받은 사랑의 빛, 기도의 빛이 이 세상에 흘러보내겠습니다. 그 빛을 갠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서 완치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인공이 제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 먹먹해지고 고마움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미안한 마음을 넘어 한없이, 한없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아무리 좋은 형용사로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막으로 떠난 이들

글 김은찬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1교구)



떠남이란

초기 기독교는 '떠남의 여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로 공인되면서 교회는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신앙은 제도와 형식에 갇히면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도시를 떠나 사막과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으며, 신앙의 최고 목표인 '그리스도의 완전(perfectio Christi)'을 추구했습니다. 사막에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노동과 청빈을 통해서 기독교 영성에 다시 불을 지핀 이들의 삶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성경의 역사는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제 삶 또한 그러한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스무 번이 넘는 이사를 했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유년 시절에만 열 번, 이후 대학, 군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열 번 이상의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떠남은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유년 시절의 떠남

유년 시절 가장 큰 떠남은 도시에서 시골로의 이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목회지가 농촌으로 정해지면서 익숙했던 도시의 삶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독립성이 강조되지만, 시골에서는 마을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차차 사람 사는 따뜻한 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던 막내아들이었던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와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떠남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또다시 익숙한 환경을 떠났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청년 시절, 교수님이나 선배들보다는 기숙사 근처의 작은 개척교회와 학교 지하 기도실이 더 편안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셈입니다.

치열한 삶으로의 떠남

졸업 후 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낯선 군부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익숙한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신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바쁜 군 생활로 지쳤고, 아내는 혼자 아이를 돌보며 독박육아의 고단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서 떠남

군 복무를 마친 후,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독일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아내와 사역하던 목사님의 초대로 한인교회와 신학 연구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독일에서의 삶과 사역을 권유하셨지만,



※ 군대에 더 있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전역함으로써 떠남

둘째를 임신한 아내가 보름 동안 아팠던 일로 인해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떠남은 결과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지 못한 미완의 여정처럼 느껴졌지만, 제 내면을 더 깊이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식구와 함께한 떠남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양주 큰빛교회에서 고등부 파트 사역을 맡으며 청소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제자 양육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을 통해 가정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자 다시 양주 독바위교회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전임 사역은 쉽지 않았고, 목사 안수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떠남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목표도 계획도 없이, 다섯 식구가 6개월간 함께 부딪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친구 선교사를 믿고 떠났던 것이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는 삶 속에서 간절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선교사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부르심과 또 다른 떠남, 만남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로운 사역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제주도였습니다. 한 번도 사역지로 고려해본 적 없었던, 여행지로만 생각했던 제주도가 저의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사역은 심과 회복의 시간이었고, 아름다운 자연은 제 마음에 여유와 새로운 영적 성찰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부르심을 느끼며 제주의 끝자락에서 거룩한빛광성교회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떠남의 의미

사막으로 떠난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의 욕망과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남은 슬픔과 두려움의 여정이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떠남의 고통을 넘어 사막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익숙함을 떠나 사막으로 나아갈 때 조용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들 모두의 삶이 그러한 떠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인생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2



3

1. 남양주에서의 마지막 예배, 사역의 기쁨이 있었지만 전임 사역을 위해 떠남
2. 다섯 식구가 함께 떠난 첫걸음, 인도네시아
3. 사막의 영성을 사모하며 홀로 찾아 떠남 은성수도원의 현판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인찬양단

글 최은우 학생기자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취재 차 만난 예인찬양단과 함께

1. 예인찬양단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늘 아낌없이 섬겨주시는 김현삼 단장님과 정혜주 리더님, 악기 연주와 보컬 담당 22분이 계시는 저희 예인찬양단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3부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여는 일을 합니다.

2. 찬양단을 하며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보람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매 주일에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한 주 한 주를 은혜로 보내는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도 무척 많지만, 찬양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찬양할 때 느낄 수 있는 감격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노곡교회에서 저희 예인찬양단 영상을 함께 유튜브로 보면서 찬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찬양을 통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세울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3.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을 해야 하는데, 예배 전에 긴장되지는 않나요?

사실 정말 긴장이 많이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 전에 각자 삶에서

그 주의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모여 연습할 때 연습이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받는 충만한 은혜로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도 긴장감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친밀감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서 강한 용사로 설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네요.

4. 찬양 중에 돌발 상황이 생겨 곤란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사실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다 드럼 집사님의 헤드셋이 날아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발로 드럼 부스 문을 열어야 하나 순간 고민하다 얼른 다시 헤드셋을 썼던 것이 기억나네요. 어쩌다가 6/8 박자 곡을 4/4 박자 카운트로 시작하는 실수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노래는 6/8 박자로 잘 이끌었던 적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팀워크라는 거겠죠. (웃음)

5. 예인찬양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먼저 꿈고 싶은 것은 화합, 그리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24명의 대식구 예인이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연합



연습실에서 주일 찬양곡을 연습 중인 예인찬양단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노래 실력과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에 그대로 담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부족한 점도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연합의 덕목을 품어야 합니다.

또 저희는 찬양 인도를 맡은 팀이기 때문에, 악기와 싱어 모두 가사 목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써 놓은 고백을 그저 읊는 것이 아닌, 각자가 그 주의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아갈 때 노래가 개인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그 주의 가사를 노트에 쓰며 묵상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7. 예인찬양단을 하며 받았던 응답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날,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찬양을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대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찬양하며 슬픔에 흘리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었다던 단원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저희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데, 저희 연습 시간에 살짝 떡을 두고 가시는 성도님, 회식 중에 식당에서 처음 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머무시한(?) 회식비를 전부 계산해주시고 가신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8. 찬양단에 들어가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나이 제한 같은 것이 있나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80대 권사님께서 예인찬양단 연습에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단원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또 제한은 아니지만, 예인찬양단에 들어오게 되면 필독서로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 『깨끗한 찬양』, 『성막』, 이 중 한 권의 책을 읽는데요, 신입 단원분들은 3주간의 훈련 기간 중 『깨끗한 찬양』을 주로 읽고 난 후 느끼고 결단하는 부분을 팀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현재는 정기 모임 시에 박철순 간사님의 예배 목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하다 보면 매너리즘과 익숙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통해 예배의 중심인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사역팀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항상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는 성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3부 예배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3부 예배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께서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아프신 건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걱정하는 마음이 들 만큼 이제는 가족 같은 성도님들, 사랑이 가득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약 20분간의 찬양 시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구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준비 중인 예인찬양단



거룩한빛광성교회 우간다·잠비아 단기선교

우간다

2025년 2월 2일~2월 14일



글 조문식집사

퇴직 신청하고 떠나다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우간다·잠비아 2주 단기선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던 회사에 과감히 퇴직 신청을 하고 선교에 동참했다. 곽승현 목사님을 포함해 총 33명이 참여한 '우간다·잠비아 2주 단기선교'는 은혜의 연속이었다. 우간다에서는 김한주 선교사와 허정도 선교사의 사역지를, 잠비아에서는 노영순·이병한 선교사 부부의 사역지를 방문했다.



반기는 아이들

우간다에서는 김한주 선교사님께서 에이즈 환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희망 프로젝트 사역을 하고 계셨다. 우리 선교팀이 도착한 첫날 약 50여 명의 편부모 슬하의 어린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몸동작을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아기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크나큰 감동과 감사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다.



의사가 희망인 나카토 페이스

위임목사님께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에이즈 환자 다섯 가정을 방문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그중에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자신도 나약해 보였지만 에이즈 면역력이 떨어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에이즈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엄마를 치료해 주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나님 이 어린 여자아이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타운십 초등학교 + 화장실 헌물식

선교 센터에서 버스로 약 2시간 걸려 도착한 한 초등학교(타운십 초등학교)에는 약 2,400여 명이 학생들이 있었다. 학생 숫자에 비해 교육 환경과 주변 위생 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되고 부족했다. 우리 교회에서 화장실 6칸을 지어 부족하지만 위생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며 여학생들을 위해 생리대를 나눠주었다. 많은 학생들과 미리 준비한 각종 놀이를 하고 사탕 등을 나누어 주며 잠시나마 아이들 얼굴에 즐거움과 웃음을 안겨 주었다.



빈민가 + 어린아이를 업고

다음날 또 다른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의 빈민가 지역에 사는 약 200여 명을 만났다. 8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돼지 축사보다 못한 환경에서 자기보다 어린 두 동생을 업고 돌보고 있었다. 가여운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인가 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대한 탄식만 나왔다.

이곳 역시 화장실이 부족하고, 여기저기 오물이 묻어 있었으며 배고픔에 지친 어린 아가는 울다 지쳐 언니 품에서 졸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만 들었다. 김한주 선교사님은 이곳에서도 이들의 눈높이에서 돌봄과 학비 지원 사역 등을 하고 계셨다.

Karina 장애인

Karina 지역에서는 장애인들과 싱글맘, 그리고 에이즈 환자 가족 약 50명을 만났다. 이들 역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옥수수 가루(10kg)와 초코파이 등을 나누어 주었다. 선교사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연신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학부모들이 감사의 인사를 김한주 선교사님께 전했다. 이러한 선교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무꾼고 순교자 기념관

1870년대 부간다 부족(왕국)의 왕이 기독교(천주교, 성공회)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미신(무당)이 판을 치고 있었다. 부간다 왕 2세 때에는 하인이 자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해 가톨릭 12명, 성공회 13명 등 약 25명의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다. 우리나라가 그랬듯 우간다에서도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허정도 선교사 사역지, 롱 하트 미션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허정도 선교사님의 롱 하트 미션교회를 방문했다. 마침 주일이어서 같이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이곳에도 역시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미혼모와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주일 아침에 아이들이 레코더로 연주하는데,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니...'라는 가사의 내용이 이들의 현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았다. 남루한 옷을 입고 그들의 몸에 흠먼지가 묻어 있을지언정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은 거룩하고 숭고하게 여겨졌다.



마무리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 했던가. 설교 시간에, 또는 마스크를 통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우간다의 현지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숭고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아마 이번 아프리카 단기선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의 귀중한 신앙의 자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권하고 싶다. "반드시 선교 현장에 다녀오시라고..."

거룩한빛광성교회 우간다·잠비아 단기선교

잠비아

2025년 2월 2일~2월 14일

글 한숙권사

2024년, 일본 순교지 탐방과 베트남 사경회를 통해 선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성 10기 선교학교를 수료하며 세계선교위원회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프리카 아웃리치 선교회에 합류했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32명의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잠비아에서 마주한 현실

잠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우간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는 짐을 옮겨주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팁을 요구했고, 거리 곳곳에서 절도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집 주변을 뾰족한 유리 조각, 철조망, 전기선으로 둘러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도 "반드시 여러 명이 함께 다녀야 한다."고 조언할 만큼 치안이 불안정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잠비아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만남이 선교 여정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잠비아 첫 사역지-노영순-이병은 선교사님의 아머스쿨 방문

아머스쿨(아머 초등학교)에 들어서자, 이곳을 지켜온 학생들과 선생님이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옥수수 가루 10kg 200포, 학용품, 간식 등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곧이어 찬양 시간이 시작되자, 작은 아이들이 학년별로 찬양을 부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린 몸으로 힘껏 찬양하는 그 모습은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숨카도시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우리는 이곳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영순-이병은 선교사님 두 분은 20년간 잠비아에서 사역해 오셨고, 그중 12년을 아머스쿨에서 헌신하며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노영순 선교사님께서는 올해를 끝으로 아머스쿨이 현지인에게 독립될 예정이라고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역이 결실을 맺고,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랑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낯설고 어려운 땅이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머스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빈민가 어린이들

창문 너머에서 아머스쿨을 바라보는 또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받지 못하는 창밖의 아이들이 교실 바깥에서 유리창 너머로 교실 안을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배움을 원하지만 학교에 들어올 수 없는 현실. 너무나도 가난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눈빛에는 동경과 아쉬움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과자를 나눠 받은 교실 안에 있던 아이들이 기쁨의 미소를 지을 때, 그 모습을 본 창문 밖의 아이들은 작은 손짓을 하며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한정적

이었고,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받은 아이들의 웃음과 창밖에서 바라보던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이 대조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그 아이들의 눈빛이 오랫동안 마음 속에 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닝스타 신학교 답사 방문

모닝스타 신학교에 도착하자, 이곳에서 흘러온 오랜 시간의 흔적과 깊은 신앙의 흔들림 없는 기둥이 느껴졌습니다. 신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잠비아의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해 온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모닝스타 신학교를 이끌어오던 은퇴하신 선교사님은 이제 후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노영순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학교를 맡길 후임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닝스타 신학교가 계속해서 잠비아의 복음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간절해졌습니다.



몬테소리 초등학교 방문

몬테소리 초등학교는 규모와 환경이 잘 갖춰진 사립학교였습니다. 잠비아에서 본 다른 학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안정감과 차분함이 느껴졌고, 교실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배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몬테소리 초등학교에서 선교팀 33명이 각자 3분씩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배운 겸손과 순수함을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떠나는 일회성 선교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선교팀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P.S.

모든 사역을 마친 후, 위임목사님께서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선교를 마친 후 마신 커피 한 모금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따뜻한 한 잔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농인부 단기선교 캄보디아

2025년 2월 13일~2월 18일



글 박경숙 집사

여는 말

2024년 교회 표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기도 가운데 단기선교를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농인들도 단기선교를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는 농인들에게 농인인 우리가 직접 말씀을 전하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농인 두 분(장의영 집사, 이순임 집사)을 시작으로 농인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기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놈펜 농인 학교 방문

캄보디아 프놈펜 농인 학교(초등1~6학년 학생)에 방문하여 농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프놈펜 지역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농인 학교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허락으로 '임재' 찬양으로 만남을 시작했으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농인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농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농인 교사(청인 교사)에게, 농인 학교 안 보청기를 만들고 수리할 수 있는 공간에, 농인 학생들의 수업 공간에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인 학교에 준비한 학용품을 전달하고 간식을 준비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농인 학생들이 '사랑해요' 수어로 보답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깜똌 농인 가정 심방

깜똌 지역에 도착해 농인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깜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하면 마을에서 괴롭힘이 시작되고 결국은 추방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농인 다섯 가정을 심방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라는 수어를 보고 눈물 흘리며 "아멘."이라고 수어로 대답하는 농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농인들의 삶은 너무나 가난하고 피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 농인부를 캄보디아 땅에 보내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인 한 사람을 만

나러 가면 준비된 영혼들을 2~3명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복음은 가정마다 전해졌고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하셨습니다.



깜똌 전도 행사

하나님께서 깜똌에 흩어진 농인 80명을 모아주셨습니다. 가정 심방으로 만난 농인들이 회심하고 지인들을 불러 모아 주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한국 음식(김밥 130개)을 만들어 농인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갔습니다. 많은 농인과 농인부 성도들이 준비한 연극을 선보이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정성껏 싸 온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한국 의상(한복)을 입고 한옥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의상인 한복을 입고 부부가, 연인이, 때로는 혼자서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박물관 방문

캄보디아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인구의 90%는 불교, 5%는 힌두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단 1%뿐입니다. 곳곳에 불상과 우상들이 가득한 캄보디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대학살과 식민지 생활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진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첫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30년간의 헌신으로 캄보디아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100년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불상을 가정에 두고 믿어야 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마무리

이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해수-배현숙 농인 선교사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길 기도합니다. 또한 제자 4명을 통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선교 헌금이 끊어져 3자녀와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농인 선교사님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신 영혼을 찾아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성경 컬러링

도안을 예쁘게 색칠하여 자신만의 컬러링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완성작을 사진으로 찍어 『겨자씨』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에서와 야곱



도안 조혜리

컬러링 미션 마감: 2025년 5월 5일 | 보낼 곳: 010-8025-0549 | 참고: 성함, 연락처, 색칠하며 느낀 점도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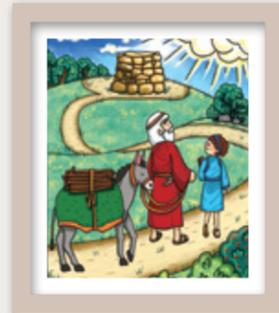


‘성경 컬러링 이벤트’ 선정작 7점

지난 호 이벤트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컬러링에 참여한 작품 중 7점이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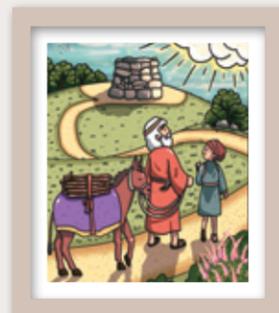
“이 그림을 색칠하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제 길에 나타나는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힘을 줍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박예인 (거룩한빛광성교회/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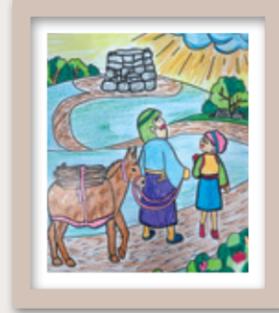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순간은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순종과 신령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의 순전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깊은 사랑과 결단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 속에서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느꼈습니다.”

박예준 (거룩한빛광성교회/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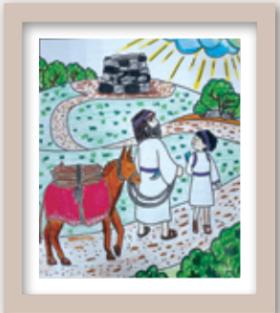
“아브라함과 이삭의 발걸음이 제단에 가까워질수록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셨겠지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잘 나타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이정자 (혜성교회/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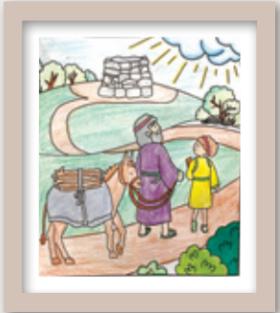
“진정 나의 사랑하는 딸(세연이)을 드릴 수 있을까?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생각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청남 (혜성교회/집사)



“색칠하면서 성경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졌어요.”

최로아 (거룩한빛광성교회/초등4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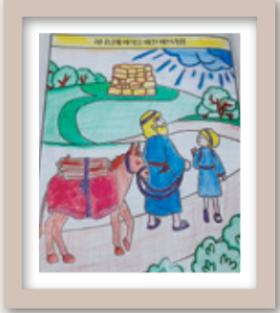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좀 슬프기도 하고...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경수 (비기독교인)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자녀인 이삭을 바치러 간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가며 마냥 즐겁다. 소풍 가는 줄 아는 걸까?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소중한 자녀임에 감사하다. 성령님, 나의맘씨·맴씨·숨씨를 도우소서!”

에스더 한혜경 (거룩한빛광성교회/권사)





« 고수꽃이 핀 모습이다. 고수는 이스라엘 말로 '갓'이다

» 고수씨를 판매하기 위해 비닐에 담은 모습이다. '만나'의 모습이 이와 같다



만나

글 김종식 관장(세계기독교박물관, www.segibak.or.kr)



대부분의 성도들은 만나가 빵처럼 생겼다고 대답한다. 어느 화가가 광야에서 빵 쪼는 그림을 삽화로 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나를 빵이나 팝콘처럼 생긴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만나가 갓씨와 같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다(출 16:14)고 설명하고 있다. 갓씨는 한국어로 고수씨를 말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작고 둥글다.

민수기에서는 만나의 모양이 진주와 같다(민 11:7)고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색깔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출 16:31)고 했다. 랍비는 고수씨처럼 생긴 하얀 것이 광야에 눈처럼 내려 쌓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어 먹었다고 설명한다.

개역개정 성경이 한때 만나를 '갓씨 같이 희고'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갓씨는 희지 않고 갈색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전의 개역한글 성경이 만나를 '갓씨 같고도 희고'라고 올바르게 번역했다.

만나라는 이름은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이게 뭐야?"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뭐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인데(출 16:15), 70인역은 이를 '만나'로 번역했다.

식물에서 만나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눈처럼 내린 음식'이었다. 이 만나를 마지막으로 한 오멜 분량이 항아리에 담겨져 법궤 속에 보관되었는데(출 16:33), 법궤가 사라진 후에는 더 이상 만나의 실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꿈.담

꿈을 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다음세대

꿈꾸는 다음세대

학생

꿈을 담는 가정

가정

꿈을 지켜주는 담장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꿈꾸는 다음세대

꿈꾸는 꼬마 (꿈꼬)

영아(0~3세)
유아(4~5세)
유치(6~7세)

꿈꾸는 어린이 (꿈린이)

초등학교
1~6학년

꿈꾸는 세대 (Dream Generation, 꿈젠)

꿈젠 중등부

14세~16세
중학생

꿈젠 고등부

17세~19세
고등학생

꿈담 | 유치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유아부

글 정은숙 기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52)

교육부가 주관했던 꿈담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내내 마음속에 그려진 색은 바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밝고 신나는 느낌의 주황색이다. 아이들의 밝고 화사한 웃음으로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그 주황색. 준비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지 애타던 모든 걱정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표정으로 말미암아 말끔하게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행복한 마음이 가득해졌다.

아이들이 단풍잎 같은 손과 발로 꿈지락꿈지락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면 “작은 예수!”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유아 시절의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올해의 목표는 교회 표어와 같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아이들을 섬기는 유아부가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고자 한다. 양요한 전도사는 아이들을 통해 가깝게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성도님들, 멀게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길 소망하며, 꿈을 이뤄가는 여정에 성도님들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1. 기쁨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유아부 선생님들
2. 예수님의 사랑처럼 부풀어오르는 풍선
3.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요



꿈담 | 초등 3부

하나님 사랑으로 자라가는 초등 3부

글 정은숙 기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교사 공동체는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팀으로, 공고한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초등 2부에서 올라온 귀한 영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 섬기겠다고 가슴 깊이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며 모든 양의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다. 서로의 존재를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교 시간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화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교사 공동체는 다른 문화와 세계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시간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하나님,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나게 하소서.”

올해 초등 3부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바울 선교의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기를 소망한다.

1.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2.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친구들이에요
3. 예배 노트를 받고 함께 사진을 찍는 반 친구들
4.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려 보아요



꿈담 | 중등부

중등부 학생선교사

글 태경환 학생기자

중등부 '학생선교사' 250여 명 파송식

학생선교사는 학교에서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달이 지났다. 누군가는 새로운 학교 생활에 설레고 누군가는 따분할 것이다. 새 학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중등부에서는 '학생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중등부 친구들은 'His-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다. 그곳에서 중등부 친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여주는

성막과 방주에 대해서 배웠다. 이제 중등부 친구들은 수련회에서 배운 것을 학교와 학원, 그리고 일상 속에서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급식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물론 학업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구분되게 살면 다른 친구들도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할 중등부 친구들을 응원한다.



꿈담 | 고등부 김창석 고등부 부장 인터뷰

글 최아인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겨자씨』 학생 기자 최아인입니다.
수련회는 저를 비롯해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는 특히 더 은혜로웠습니다.
버스에 타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는 무척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행복한 고등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김창석 부장님 인터뷰

최기자 수련회는 시작 몇 주부터 준비하시나요?
김창석 부장 우리 고등부는 본격적인 준비를 2개월 전부터 합니다. 또한 수련회 장소는 1년 전에 예약하고 유명 강사나 외부 인사 섭외 및 방송팀 같은 아웃소싱(outsourcing) 업체 컨택은 최소 6개월 전에 진행합니다.

최기자 수련회를 준비하는 회의에서 교사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길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김창석 부장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으로 절충할 뿐이지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최기자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김창석 부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꼭 수련회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요. 예를 들면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수영 시간 이후 바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학생들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 내년에는 수영 시간이 끝나고 낮잠 시간을 한 시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혈기 넘치는 아이들이 불 끄고 자라고 하면 잘 건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누워서 할 수 있는 마스크 팩 시간을 가져본다면 자연스럽게 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수영 시간이 끝나고 한 시간 정도 마스크 팩을 하는 시간을 주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아이디어를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에게 공유했고 반응이 좋아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련회 준비할 때 급하게 나오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아이디어를 중간 중간에 주십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최기자 수련회에서 사실 저희의 최고 관심사는 방 배정이랑 조 배정인데요, 혹시 어떻게 결정되나요?
김창석 부장 겨울 수련회는 새로운 반이 배정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을 흠지 않고 유지하면서 조를 편성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끔 조를 편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기자 간식의 종류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김창석 부장 저녁에는 치킨과 피자를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원하는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기호대로 프로그램 중간중간 당 충전도 하고 간식을 먹으면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기자 혹시 간식 부스를 계속 유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김창석 부장 다음 부장님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임기 중에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 1. 매월 둘째 주에 여는 교사 친교 모임은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 2.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고등부 행사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친목도 다진다



최기자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창석 부장 핸드폰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은 없어요.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거나 해서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았구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작년 겨울에 시작하자마자 많은 선생님들에게서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건자는 의견이 나왔을 텐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안 건고 있어요.

최기자 다음 수련회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창석 부장 결의 형식보다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수련회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요. 그 차이는 마음의 자세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를 갈망하고, 받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최기자 이상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여성 ②

기획 김형수 기자

100여 년 전, 이 땅을 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후, 그녀들을 담장 밖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소중한 종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좁은 집안에 갇혀 온갖 미신에만 사로잡혀있던 그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성들을 울타리 밖으로 불러내어 세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스스로 글을 깨우친 여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부단한 노력으로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바로 설 수 있었고, 신분제 철폐에도 힘을 보태면서 마침내 조선 사회개혁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야기 요약

조선 시대 후반,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서서히 균열하면서 여성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1894년(갑오년) 정부가 '갑오개혁'을 공포하여 과부의 재가(재혼)를 허용하고, 또 조혼(너무 이른 나이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렇지만 여성의 일상은 여전히 가사노동(시부모 봉양, 바느질, 직포 생산, 육아 등)과 발일로 채워졌다. 또 여성의 세계는 집안 울타리 안에서 맴돌며 담장 바깥 세계로부터 차단되었다. 여성의 세계관은 내 집안(가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고, 집안마다 가신(家神), 예컨대 삼신단지, 지신, 성주단지 등을 모셔놓고, 가족의 안녕과 무사고를 비는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다. 그러했던 여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발단은, '여성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 -지난 호에서-

선교사 부해리(Bruen)가 세례받는 여성에게 정식 이름을 지어줬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이름(名)을 가짐으로써, 이름이 없던 무명(無名)의 존재에서 이름을 가진 유명(有名)한 존재로 거듭났다.

초창기 기독교여성들의 자의식, 성경을 통한 새 삶, 학교 교육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첫 번째 이야기

기독교 여성의 자의식

1 담장 너머, 멋진 신세계의 달콤한 맛!

경상북도 안동은 유림 전통이 깊은 고장이었고, 그 전통 속에서 여성의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남녀의 내외 법도가 엄격한 가부장 가족질서가 여성의 삶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미국 여성 선교사에게 소개받은 서양 일상 문화로 말미암아 서서히 풀려났다.

1909년, 안동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지부가 개설되었다. 첫 선교사 오웰번(Arthur G. Welbon)의 아내 새디(Sadie)는 여성 선교사로서 마을에 사는 이웃 여성들과 소통하며 왕래했다. 미국식으로 생활하는 새디의 서양 생활문화가 이 집을 방문하는 마을 여성들에게 소개되었다. 아궁이가 있는 부엌(정주간)만을 경험했던 여성들이 서양의 입식 부엌을 구경하면서 놀랐고, 온돌방 방바닥만 알고 있던 여성들이 침대 생활하는 선교사의 안방을 낯설어 했으며, 서양 생활문화의 신기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무엇보다도 서양 음식문화가 크게 다가왔다. 밀가루 빵, 케이크, 도넛, 푸딩, 과일잼(딸기, 살구, 사과), 젤리(자두, 파인애플), 건포도, 비스킷, 설탕, 우유와 분유, 토마토소스, 호박파이 등. 그 시대 경상북도 북부지역 여성들은 태어나서 처음 이런 음식들을 맛보았다. 달콤한 이 맛! 그 무엇이라 표현하라? 여성들은 혀끝에 와 닿는 미국 음식의 맛으로 서양 문물을 처음 접했다. 이들이 구경한 모든 음식들은 미국에서 주문하여 머나먼 바다를 헤치고 온 것들이었다.

새디는 또한 자기 집 텃밭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당근, 양배추 등을 여성들에게 소개했다. 심지어 사과나무 묘목도 소개했다. 경상북도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서양 과일 나무였다.

이렇게 여성 선교사 새디의 집에서 멋진 신세계를 경험한 안동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신여성이 되어갔다.



서울 Bible Woman(1907년)

2 멋진 신세계에서 성경공부 모임



평양 Bible Women(1908년)

선교사의 집에서 서양 음식을 입으로 맛보고 생활문화를 몸으로 체험한 안동 여성들은, 새디가 인도하는 성경공부에 초대받았다. 새디는 1910년 6월 16일, 여성 성경공부반을 개설했다. 75명이 모였다. 첫 모임부터 대단한 성황을 이룬 여성 성경공부 모임이었다.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가장장적 가족질서에 젖어있는 여성들에게 그들만이 따로 모이는 성경공부는 자유와 해방이 포함된 모임이었다.

새디가 인도하는 여성 성경공부는 진전되며 진화했다. 1910년 12월에 결혼한 젊은 여성(색시)을 위한 '월요일 성경공부반'이 개설되었다. 낮에는 집안 살림으로 분주한 새댁들이 저녁에 어린 아기들을 재운 후에 모였다. 미혼여성(처녀)들 성경공부반도 개설되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 글을 읽을 수 없는(문맹) 여성들이 따로 모였다. 모임 장소는 주로 새디의 집 서재와 식당이었다. 따로따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인원이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23명이었다.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했다. 이들 가운데 더러는 1911년에 개교한 여성 신식 사립학교인 안동 계명학교에 다녔다. 이렇게 여성 성경공부, 여성 교회생활, 여성 신식 사립 계명학교 재학 등은 안동의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각성하게 하면서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신앙의식이 깨어난 여성들의 사회개혁

1902년 무렵, 강화도에 사는 어느 여성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글을 배우지 못해 문장을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 상태였다.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신세가 서글펐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글 배우에 빠른 진보를 보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되었다. 문맹에서 해방되어 성경을 읽어냈던 것이다.

그 여성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으며 깨우치는 바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세상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에 따른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런데 사실 그 여성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집안일과 농사를 운영하는 대가의 마나님이었다. 엄청난 부자였고 배포가 큰 여성이었다. 이 마나님이 자기가 부리던 종복(從僕)들을 한곳으로 불렀다. 도대체 무슨 일로 모이게 했는지 어리둥절해 있는 종복들에게, 이 마나님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20절을 낭독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신앙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그러면서 마나님은 미리 챙겨온 노비 문서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 이것은 마나님이 종복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는 행위였다. 이 이야기는 1903년 감리교에서 발간하던 『신학월보』에 실린 일화이다. 그 일화의 제목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종복들을 자유인이 되게 했던 그 여성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 여성은 신분제 전통 풍습을 깨고 나왔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이 여성을 통해 그 당시 신분제 사회질서를 타파하게 했다고 본다.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었던 것이다.



서울 배화여학교(1906)

세 번째 이야기

여성교육을 위한 학교설립

기독교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며 성경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성들도 정규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1887년 서울 정동에 정동여학당이 설립되었다. 한국 장로교 첫 여성 교육기관이었다. 이 학교가 1895년 종로구 연지동으로 이사했는데, 여성 선교사 도티(Susan A. Doty)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는 여자아이 10여 명을 모집하여 초등교육을 시작했다.

1895년 부산에서는 일신여학교가 설립되었다. 호주 출신 선교사 멘시스(Miss Belle Menzies)가 여학 선생 박신연(朴信淵)의 도움을 받아 이 학교를 설립했다. 멘시스 역시 2년 전에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는 여자아이들을 기르는 고아원을 시작했고, 이 고아원이 나중에 일신여학교로 거듭났다. 학교 이름인 일신(日新)은 '날로 새롭다.'는 뜻인데,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운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였다. 이 학교는 3년 과정 소(초등)학교였고, 첫 입학생 3명으로 시작했다.

서울에서 1898년 연동소학교가 또 여학생을 모집했다(정신여학교). 연동교회 담임목사였던 선교사 기일(James S. Gale)은 여성 인권과 여성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는 아시아의 전통 종교(불교 등)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동북아시아 여성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오기(선교)까지 약 2,000년을 기다렸으며, 이제는 이 여성들이 등에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예수의 발아래 내려놓고 그들의 슬픔을 하소연하게 되었다. 예수는 여성의 처지에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 유일한 동양인"이라고 말했다.¹⁾

1908년 1월에 발간된 『예수교 신문』에 따르면, 여성에게 기독교 신앙은 해묵은 구습을 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신문은, 여성이 신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습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여성이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여성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읽으면서 여성됨의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치유하신 혈루병 앓는 여인,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인 여성들을 통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했다.

1) Blanche I. Stevens, "Contribution to the Christian Movement of Educational Work for Young Women",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June 30-July 3, 1934), 145.



서울 정신여학교



부산 일신여학교

고양시 덕이동 소재 거룩한빛등대교회

글 김용기 기자



≧ 창립 1주년을 맞아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을 밝히는 '등대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립개척을 앞두고 준비모임에서 만난 한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등대교회'란 이름으로 교회가 섰어요."

거룩한빛등대교회가 분립개척 1주년을 맞았다.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8년을 시무하다가 등대교회를 개척한 문상원 목사는 지난 1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등대교회는 함께한 255명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의 결과물이라고 고백하는 문 목사는 "등대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의 분립개척 정신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이 동력이 되어서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36번째 형제교회로 개척한 거룩한빛등대교회는 분립개척위원회가 설립된 후 6개월 간의 교회 지원 절차를 거쳐서 세워진 매우 의미 있는 파송교회이다. 2023년 6월에 분립개척 절차를 시작해서, 8월에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10월부터 동참인과 마중인 지원을 받은 다음, 2024년 1월 21일 192명의 파송성도와 함께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2023년 2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의 담임목사 청빙에서 고배를 마시고 마음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 문상원 담임목사



≧ 성도들이 온 가족 식탁교제에 참여하여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회의 성지순례에 참여했던 문 목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순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개척, 청빙, 선교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서원을 드렸다.

미래에 관한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사역에만 집중하던 그해 7월,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새로운 분립개척을 의결하고 문 목사를 개척교회의 담당목사로 결정했다. 그렇게 교회설립 절차가 개시되었다.

교회설립 과정은 은혜의 연속이었다. 동참인과 마중인 신청을 받은 지 1달 만에 지원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그러자 이제 교회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 참여 성도들과 협의하며 상가 쪽에 위치한 교회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강당을 염두에 두고 준비모임 예배와 중보기도에 집중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등대비전스쿨을 연결해 주셨어요. 학교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교사뿐만 아니라 강당, 실내 체육관 등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개방해주었어요. 주차와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등대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추구하는 교회

등대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등대교회의 비전은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 '모든 이를 환대하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이다.

등대교회의 '다름'은 말씀으로의 회심이다.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에서 나오는 환대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지역에 전하는, 사랑과 말씀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길이 있어요. 학사 에스라의 말처럼 책을 펴고 그 속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전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 이 지역을 밝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 5차에 걸쳐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총명한 은혜를 나눴다



≧ 월요중보기도회



≧ 주중 센터(고양시 경의로 844)에서 금요집회와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세워가는 교육공동체

글 이수연 집사(광성드림학교 학부모)

광성드림학교는 '학부모가 함께 다니는 학교'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단순히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에 참여합니다.

광성드림학교에는 기독교학부모교실, 교실축복기도여행, 아버지학교, 중보기도팀, 학습지원팀 등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은 학부모들 간의 교육과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성장을 기대하며 자율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예산 없이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학교와 학부모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학부모들은 학교를 신뢰하며 학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는 학부모의 활동을 지지하면서 좀 더 풍성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활동은 단순한 학교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팀에 참여하여 스태프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

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의 시선이 '내 자녀'에서 '우리 아이들'로 확장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과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자녀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광성드림학교의 학부모 참여는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학교생활을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광성드림학교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며 신뢰를 쌓는 특별한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꾸준히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학교와 가정은 단순한 교육의 주체를 넘어 깊이 있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부모를 잠재적 적대관계로 인식하고, 학부모는 교사들을 자녀 담당 도우미나 민원 처리인으로 여기기도 하는 오늘날 교육 현실에서 광성드림학교는 학부모를 기꺼이 환대하며 교육의 동지로 여기고, 학부모 역시 학교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며 교사를 신뢰하고 격려하며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완벽한 학교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학교로서 광성드림 교육공동체는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교육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화요학부모 신앙교육



▽ '교실축복기도여행'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책상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아버지들



△ 기독교학부모교실

△ 경배와 찬양



△ 광성드림아버지학교

광성드림학교 중고등 과정 졸업생 인터뷰

매일 성장하는 나를 만나는 따뜻한 공동체

글 전하빈 학생기자

광성드림학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모든 활동들을 경험해 본 학생들이일 것 같다. 광성드림학교 중고등 과정의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졸업한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았다.

구도현 학생(중등과정 졸업, 고등과정 재학생)



Q. 일반학교 대신 광성드림학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에 부모님의 권유로 드림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신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임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광성드림학교에서 배운 것이 졸업 이후 생활(진로, 가치관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드림학교는 제게 기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대학교 이름, 성적 같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찾으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제 가치를 먼저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거짓이겠지만, 그 안에서 싸워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과 다짐 또한 드림학교에 있었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중등과정 드림비전스쿨에서 해외이동수업을 다녀왔다



≪ 학교 추천으로 참가한 청소년 연합캠프에서

박건희 학생(고등과정 졸업생)



Q. 학교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나 수업은 무엇이었나요?

11학년 때 떠났던 독일 비전트립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먼 곳으로 떠나기 전 친구들과 과 선생님들 모두가 힘을 합쳐 바자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기도 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며 의미 있는 비전트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과정이 떠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선생님, 친구들과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Q. 광성드림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할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끝없이 많아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모범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 주시는 학부모님들까지. 광성드림학교 공동체는 정말 많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에 착실히 임하다 보면 이전과 달리 너무나도 많이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의로든 부모님의 권유로든 여러 이유로 광성드림학교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광성드림학교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방향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광성드림학교의 모든 학생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길 기도한다.



≪ 11학년 때 떠났던 독일 비전트립



≪ 정들었던 드림학교를 졸업하던 날

배원준 집사님의 유쾌한 섬김 이야기

글 우주희 기자



㉞ 목장 식구들과 함께



㉞ 늘 힘이 되는 가족

배원준 집사님의 섬김

가끔 교회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팝콘 향기가 나지요? 그곳에는 배원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은 배 집사님을 '팝콘 아저씨'라고도 부르지요. 아이들에게 팝콘을 퍼주며 자기가 오히려 기쁨을 받는다고 고백하시는 배 집사님의 즐거운 섬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팝콘 아저씨

'원텐텐가정예배팀'에서 스태프로 섬기시던 배 집사님은 '원텐텐가정예배PT학교' 준비 회의 중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고민하다 팝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계도 사비로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원텐텐PT학교 홍보뿐 아니라 집사님께서 섬기시는 다른 부서의 행사에도 팝콘 아저씨로 활동하셨지요. 처음에는 두 시간 걸리던 기계 청소도 이제는 요령이 생겨 한 시간만에 할 수 있다며 유쾌하게 웃어 보이십니다.

군고구마 아저씨

그러던 집사님이 이번 겨울에는 '군고구마 아저씨'로 변신하셨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 아프리카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 때 문이었습니다. 베트남 선교에 참석했던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선교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올해 2월, 아프리카 선교도 다녀오신 배 집사님. 성도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 물질을 선한 방향으로 흘러보낼 방법을 고민하시다 군고구마를 떠올리게 되셨다고 해요. 군고구마 기계 두 대 중 한 대는 또 집사님이 사비를 털어 구매하셨다고 하시니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군고구마 구우시다가 패딩을 태워도 아내한테 등짝 맞겠다고 농담하시며 즐겁게 사역하시는 모습이 보는 사람도 웃게 만듭니다.

선교를 향한 비전

이번 아프리카 선교 이후로 더욱 구체화된 집사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선교지에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집사님 눈에 우간다의 어린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선

㉞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군고구마 아저씨'로 변신한 배원준 집사



교지와 연결되어 그 땅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모이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아이의 입학금을 선교 마치고 전에 이미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마음 바뀌기 전에 선교지에서 바로 전달을 했던 것이지요.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한마음으로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집사님의 선한 꿈이 현실이 되어가길 함께 꿈꿔 봅니다.



㉞ 설날 본가에서 드린 첫 가정예배

가정예배가 가져다 준 회복의 선물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팝콘 기계를 사도, 군고구마 기계를 사도, 입학금을 쾌척해도 흔쾌히 동의해주는 아내이신 조

수아 집사님도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12교구에 처음 생긴 부부 목장의 목자이십니다. 솔직히 기도는 조수아 집사가 더 많이 하고 본인은 수박 곁핥기식이라며 조 집사님을 추켜세우십니다. 두 분도 결혼 생활 초반에는 다툼이 있었으나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확실한 목적에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가족 소통 창구도 되어주는 가정예배의 필요성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했다니 많은 가정예배 집사님 추천으로 원텐텐가정예배PT학교를 다녀갈 수 있었지요. 게다가 올해 설에는 형님과 어머니가 계시는 본가에서도 제사 대신 첫 번째 가정예배가 드려졌다고 하네요.

행동하고 열매 맺는 사람

교회에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여 있고, 은사도 제각각입니다. 배 집사님은 고민하고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도 주러 갔다가 받고 왔다고, 팝콘도 아이들에게 나눠주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마지막 고백을 하시는 배 집사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배 집사님을 들어 쓰셔서 얼마나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지가 기대됩니다.



㉞ 아프리카 선교

"꿈꾸는 시니어가 모이면 꿈꾸는 교회가 됩니다" '꿈꾸는시니어'팀 전동희 장로

글 임보미 기자



≧ 꿈꾸는시니어팀 전동희 장로



≧ 꿈꾸는시니어팀 사역을 위한 제1차 준비 모임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액티브 시니어'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의 교회 내 섬김과 사역에 대한 참여 의지도 강해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만 65세 이상 시니어 남녀 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2024)에 따르면, 시니어 교인 10명 중 4명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답했으며 '80세 이상까지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시니어와 함께 만들어 갈 '꿈꾸는 시니어' 사역에 대해 시니어 사역팀의 전동희 장로를 만나 들어 보았다.

연합하고 교류하며 함께 열어나가는 시니어 사역

"오랜 기간 몸담았던 사회 활동을 마감하는 시니어에게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일(직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그만두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 연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동반자와 더욱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대화하고 안내하는 것이 거룩한빛광성교회 시니어 선교팀의 역할이다. '꿈꾸는 시니어' 사역은 '시니어 예배'와 '꿈꾸는 3막'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시니어 성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니어가 하나되는 천국잔치, 시니어 특화 예배

'시니어 예배'는 올해 모두 네 번 있는 5주 차 주일(3, 6, 8, 11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시간에 드려진다.

예배 전 과정이 시니어를 위해 특화된 내용으로 진행되며, 예배 안내위원, 찬양대, 찬양 인도 등 거의 모든 예배 섬김을 모두 시니어가 담당한다. 이 예배에서 시니어들은 젊은 시절 뜨거운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을 함께 나누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년배 시니어들과 함께 교제하며 더욱 생명력 있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장·노년의 신도들 중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잘 모르겠다면, '시니어 예배'에 나와서 함께하는 시니어들을 만나 보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소명과 새롭게 헌신하고 싶은 사역들을 새롭게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시니어가 주도하는 돌봄과 배움의 장, '꿈꾸는 3막'

'꿈꾸는 3막' 프로그램은 시니어가 중심이 되어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어우러지는 '돌봄과 배움의 장'이다. 시니어 공동체 내 은사자와 재능기부자들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가르치면서 재능과 경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소그룹으로 모인 시니어들은 다양한 활동과 교제 속에서 서로에게 영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다.

"'꿈꾸는 3막'에 오시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시간을 통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삶의 지혜와 천국 소망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니어 공동체, '꿈꾸는 시니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 넘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교회 온 세대와 다양한 지체들에 활력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꿈꾸는시니어팀 임원 및 봉사자 모임



≧ 온종일 예배에 콰이어로 선 시니어 찬양팀

크리스천이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20세기 인공위성에서 21세기 인공지능 충격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향방은?

글 박길환 기자(대구대 공공인재대학, 경제발전 전공)

DeepSeek vs ChatGPT?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감소?

인공지능이 경제성장에 도움?

신년 초 중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5년 1월 20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DeepSeek)에서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인 DeepSeek-R1을 공개한 것이다. 챗봇 형식의 DeepSeek는 단 며칠 만에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는 앱이 되었다.

사실 업계에서 DeepSeek는 2024년 코딩·수학 분야에서 이미 ChatGPT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신년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그것도 모델 자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동시에 자신 있게 AI 앱을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었다. 마치 우주항공 분야에서 소련이 1957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스푸트니크 쇼크'를 안겼던 것처럼 21세기 AI 선두국가인 미국에 새로운 충격을 준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것은 특히 DeepSeek의 추론 위주 고성능 모델인 R1인데, R1이 현재 대표적 거대언어모델인 OpenAI사의 동급 ChatGPT 최신 버전인 o1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에서 H100 반도체 대신 수출한 H800의 성능과 가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대신 AI의 훈련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개발비용이 ChatGPT의 10분의 1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저비용으로 유사한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정확한 개발비용 내역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직 정확한 평가는 시기상조겠지만 공개 20일 만인 2월 5일 기준, 일일 활성 사용자수가 약 2천만 명에 도달했다는 DeepSeek는 사용자 평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4.2로, 4.7인 ChatGPT(4o)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정

치나 역사 등에 관한 민감한 질문에 대한 회피나 오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 향후 오픈 소스에서 다소 폐쇄적인 서비스로 변화할 가능성 등의 한계 역시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DeepSeek와 ChatGPT를 비롯한 각국의 AI 모델 개발 경쟁은 각 국가와 국민들에게 득일까 아니면 실일까? 업계 전문가들 중에서도 2024년 이후 DeepSeek의 갑작스런 대두를 예견했던 분들이 매우 드물었던 것처럼 미래를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들은 최근 수년 동안 누적된 국제적 사용자 경험 및 트렌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용화,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세를 중심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등 현재 뚜렷하게 진행 중인 거시적 변화를 기초로 해서 한 번쯤 미래를 고민하며 던져볼 만한 질문들이다.

◆ 첫째, DeepSeek vs ChatGPT?

DeepSeek의 전반적 성능은 여러 영역에서 ChatGPT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중국어 및 일부 동아시아 언어 외의 다국어, 특히 국제 공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어학습 데이터와 모델 크기 및 훈련량에 있어서 ChatGPT가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DeepSeek가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언어(자료)에 대한 학습에서 또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교통·배달 앱 Grab이나 WhatsApp과 같은 메시지의 위상처럼 전 세계적 독과점보다는 일부 국제지역에서 우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중국의 주요 AI 논문은 22만 건, 인도 11.7만 건, 미국 8.8만 건, 영국 2.9만 건, 일본 2.7만 건, 한국 1.4만 건으로 논문 수가 질적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금번의 DeepSeek 충격은 결국 양에서 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어 향후 중국 AI의 발전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둘째, AI는 일자리를 감소시킬까?

2023년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성직자, 대학교수, 성악가, 경호원, 기자 등은 AI에 취약한 정도인 '노출지수'가 낮아서 AI가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사, 회계사, 자산운용가, 변호사 등은 고소득 전문직임에도 진단 또는 상담 등의 부분적인 업무의 대체 가능성이 있어서 노출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육체노동의 경우, AI에 의한 대체보다는 로봇에 의한 대체에 가까우며 로봇의 숙련도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향후 인간(人間)으로서의 차별성은 지능·기술보다는 결국 언어·학습을 창의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소프트 스킬'로 불리는 정서·사회적 상호작용과 공감·윤리의 능력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점 또한 지당한 사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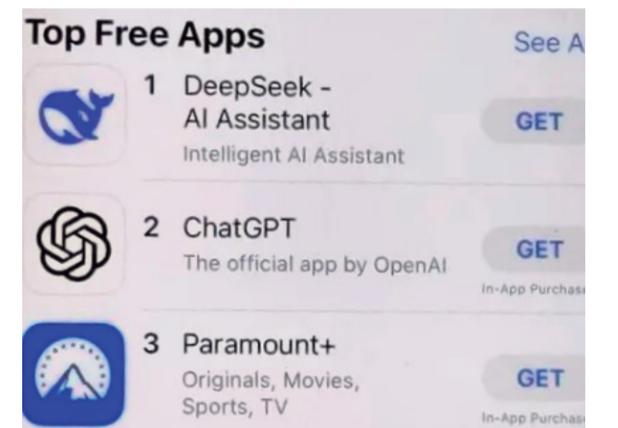
◆ 셋째, AI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

AI는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1990년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반도체의 개발·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21세기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성장은 생산에 필요한 자본(공장, 설비, 지식재산 등)과 노동이라는 주요 생산요소의 확충이나 같은 양의 생산요소 투입으로도 더 많거나 질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즉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AI의 효과는 앞서 일자리 분야에서처럼 산업부문마다 차별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여가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가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혁명으로 인해 인간은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기보다 더 구속되고, 국제적 분업과 교류가 더 복잡다단하게 각종 산업구조와 일자리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 인류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과 문화에 종속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보게 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2기의 출범과 함께, 미국과 중국은 다시 첨예한 자국우선주의 속에서 무역전쟁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모두 마주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무역전쟁과 AI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만의 TSMC 등과 펼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패권 다툼, 급속한 고령화 등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 사실상 크다.

2025년 1월 중국발 DeepSeek 충격은 인공위성이 아니라 AI 충격으로 이 새로운 '21세기 스푸트니크 쇼크'는 단순히 미국 AI 업계나 정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 속에서도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AI와 로봇 생명과학 등의 미래 유망산업에 아낌없는 연구 개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서 최근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한 이공분야에도 훌륭한 의사만큼이나 DeepSeek 분야의량원평 같은 혁신적 인재가 한국에서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사회의 아픔과 발전 방향까지 고민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글을 맺는다.



⊕ 출시 일주일 만에 주요국가 앱 스토어에서 무료앱 다운로드 1위에 오른 DeepSeek

‘고맙습니다’ 릴레이

기획 전영의 기자

1. 정호석 장로님은 이병한 집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내게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이 있다. 그중 한 분이 이병한 집사님이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과의 인연은 ‘시온찬양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9월 시온찬양대에 테너로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집사님은 베이스였고, 초창기 같은 남선교회로 활동하며 내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 집사님은 기억력이 비상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피곤 했는데, 특별히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본문을 30분 이상 줄줄이 암송하고, 달리기를 할 때에도 암송을 시연하던 모습은 정말 도전이 되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처음에는 탁구를 같이 치다가 광성마라톤으로 집사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시작하게 된 달리기는 벌써 8년이 되었다. 지루할 수도 있는 달리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줄곧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코치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 덕분에 운동으로는 유일하게 꽤 오랜 기간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달리기이다. 같이 호수공원을 달리며 신록에 감탄하며 시를 읊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교제해온 것은 내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들로 남게 되었다.

코로나 기간이었던 2022년 6월, 달리기를 하던 중 집사님은 심정지가 와서 3주간을 혼수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게 되었다. 교회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고, 병원에서는 살게 되어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고 운운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셨고 그 후 집사님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지금은 군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고 계신다.

늘 천진난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밝은 미소로 활력과 기쁨을 주는 집사님과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사를 드린다.



정호석 장로와 이병한 집사



이병한 집사와 유병례 권사



2. 이병한 집사님은 유병례 권사님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유병례 권사님께서서는 약 20년 전 사랑부 창설 당시 부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제게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적응할 때까지 수시로 격려 쪽지, 혹은 편지를 주셨고, 마음의 선물도 주시면서 사랑 베푸는 법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부족했던 제가 행사도 주관하여 진행하는 등 여러 일을 하면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제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제 딸아이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아내의 수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2022년 제가 심정지로 생사를 넘나들던 두 달여 입원 기간 동안, 사랑부를 비롯한 소그룹 기도를 힘써 감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사님 가족과 친척분들에게까지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며, 내게 교회의 사랑을 가르쳐주신, 평범한 그리스도인 유병례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3. 유병례 권사님은 김근수·이은정 집사 부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김근수·이은정 집사 부부가 광성교회 사랑부에서 헌신적인 찬양사역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이 부부는 사랑부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동시에 사랑청소년부와 청년 2부 찬양사역도 같이 감당하고 있다.

이 부부는 사랑부 찬양집회를 기획하고 지금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초창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당회와 담임목사님의 지지와 격려를 이끌어 내면서 지금의 본격적인 찬양사역으로 발전시켰다. 찬양사역 활동을 위해 부부는 광성교회 외부까지 나가 연주자를 섭외하는 등 많은 수고를 감당했으며, 찬양밴드팀 운영 및 방송 장비 대여와 설치 등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잡일까지 헌신적으로 감당함으로써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유병례 권사와 김근수·이은정 집사 부부

4. 김근수·이은정 집사 부부는?

‘고맙습니다’ 릴레이는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광성드림학교 입학식

초등과정 40명, 중등과정 40명, 고등과정 30명

사진 이종수 청년기자

지난 3월 4일 2시, 광성드림학교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본당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치렀다. 초등과정 40명, 중등과정 40명, 고등과정 30명으로 총 110명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킬 실력 있는 기독교인을 양성하고 있는 광성드림학교 입학식 풍경을 사진으로 스케치한다.





YouTube 기록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ksn



청년광장



꽃피는 꿈, 피어나는 믿음

김민엽 김세린 최민

글 김다빈 청년기자

김다빈 벌써 봄이 시작되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이네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계절처럼 오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엽님, 세린님, 민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민엽 안녕하세요. 저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기타 연주로 봉사하고 있는 24살 김민엽입니다.

김세린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김세린입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최민 저는 23살 최민입니다. 현재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대학교 입학 앞둔 평범한 청년이에요.

김다빈 모두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민엽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곳에서 기타로 섬기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으신지, 또 어떻게 봉사하시게 되었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민엽 저는 현재 거룩한빛광성교회 3부 찬양팀(예인찬양팀), 금요 철야찬양팀(브니엘찬양팀), 청년부 찬양팀(비저너리찬양팀), 나바 피플 등등 교회 다양한 곳에서 일렉 기타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찬양팀에 들어가 일렉 기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고등부 찬양팀에서 기타를 연주하다가 어느 날부터 악기 연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생겨 고등학교 3학년 때 기타 연주를 전공으로 선택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며 고등부가 아닌 3부 예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 군대 전역 이후, 더욱 많은 곳에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김다빈 그렇군요! 민엽님은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김민엽 저는 단순한 세상의 연주자가 아닌 먼저 예배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연주하는 예배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Love never falls'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한 크리스천 밴드의 공연을 마쳤는데, 이처럼 앞으로 교회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기타로 찬양하며 연주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연주하는 귀한 시간이 모두 주님이 맡겨 주신 뜻을 항상 새기며 찬양하고 싶습니다.

≪ 김민엽



≪ 김세린



김다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민엽님! 다음으로 세린님과 민님께 질문 드립니다. 두 분은 각각 그림을 그리시고, 피아노를 연주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김세린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상업적인 미술보다 순수미술, 혹은 순수예술 쪽에 더 매력을 느꼈어요. 현재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미술학원 일을 병행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제 작품을 팔아 작업비와 생활비가 해결되는 전업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나의 예술이, 나의 작품이 우선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과 세상이 바르게 나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며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민 저는 어릴 적 우연히 영상으로 어떤 피아니스트의 멋진 연주를 본 후, 쪽 피아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스무 살 때 처음 피아노를 배웠는데, 지금보다 낫도 많이 가리고 표현도 잘 못하던 저에게 피아노 연주

는 저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였어요. 이후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취미가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반주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설레고 행복해서 점점 더 넓은 기회 속에서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평생 피아노를 치며 살아가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허락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오랜 기도 끝에 피아노과 진학을 결정한 후 1년간의 입시 과정을 통해 올해 피아노과로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새내기이지만, 평생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며 음악적으로 더욱 도전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김다빈 꿈을 향해 걸어가는 청년들의 귀한 인터뷰를 담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실 세 분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



올해 빛청년부의 섬김

글 조희성 청년기자

빛청년부가 흘러보낸 사랑 이야기

거룩한빛광성교회 빛청년부는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여 진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서서 세상에 밝은 빛을 발하고 그것을 주변으로 펼쳐서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결심했고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 과정과 결실을 소개합니다.



≪ 천사가게 후원 물품 전달식 ≫

하나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천사가게에 물건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천사의 빛을 비추다'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청년들의 옷을 기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300여 벌의 옷과 물건들이 모였습니다.



≪ 평민물결주변교회에 드려준 의류물품 모으기 ≫

둘

무안공항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고자 모금을 진행해 260여만 원의 모금액을 모아서 현장에 있는 유가족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돕는 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2



≪ 위임목사님과 함께한 사랑의 온도 나누기 연탄봉사 ≫

3 셋

더불어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온도 나누기-연탄봉사 활동-'을 통해서 총 1,200장의 연탄을 구매하고 위임목사님과 청년들이 직접 해당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파주보육원 봉사 활동 ≫



4 넷

빛청년부 안에 있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직접 만들고 준비한 떡볶이와 김밥을 파주보육원에 전달했습니다.



5 다섯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께 목도리와 장갑 등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 교회 청소 여사님들을 위해 청년부에서 준비한 목도리 & 장갑 선물 ≫

다양한 곳에 사랑을 흘러보내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해 준 청년들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마 22:37-39) 세상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만 잘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풍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보 같이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을 이웃에 흘러보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큼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방법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

음으로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 섬김의 시간을 가진 청년들의 이야기는 주께 나아가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 시간, 마음, 사랑을 주변에 흘러보내는 실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다는 간증들이 이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런 깨달음과 확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빛청년부 공동체는 우리의 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서로를 향한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려 합니다. 이런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주목받는 것보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연태 청년, 튀르키예 해외 비전트립記

글 김연태(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먼저 튀르키예 비전트립을 다녀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갈 수 없었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는 듯이 시간과 물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튀르키예 비전트립을 가기 전까지 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 생각을 옳게 여기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회개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고 저는 기도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데린구유 지하도시를 방문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이곳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만들고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걷기 힘들 정도의 좁은 통로,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복음을 지키기 위해 30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힘과 말씀으로 세워진 강력한 영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고 저의 기도에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을 듣고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저 좁은 통로를 건다가 햄스트링 근육이 올라와 짜증을 냈던 제가 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와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제가 생각한 것들이 싹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까지 바쳐 사명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여정이 마무리될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자신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준비해주신 차선우 목사님과 한민 전도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룸을 한 명 한 명 모두 기억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시신 이은정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팀원들에게도 정말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성교회를 다닌 지 1년도 되지 않아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챙겨주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팀원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 히에라볼리(파묵칼레) 로마식 원형 극장에서의 단체 사진
2. 바울이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장소
3. 카페거리에서 강예진, 최서영, 이소예, 김민서 청년
4. 지하도시인 데린구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터전이다. 이곳에서 이들은 30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 빛도 없는 곳에서 오직 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의 목적 아래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김승수 청년
5. 에베소는 이 당시 정말 큰 도시이자 모든 문화가 모인 요충지였다. 특별히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집중되어 있고 온갖 종교가 모여있었다.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은 셀수스도서관이다. 장지혜 청년
6. 히에라볼리 온천욕을 즐기는 청년들. 김승수, 최서영, 박주영, 김희선, 우건희, 장지혜 청년
7.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모스크인 블루 모스크이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무슬림 국가이다. 어디를 가든지 모스크가 있다
8.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터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있던 곳이다

동티모르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

글 고하님 청년(거룩한빛광성교회)

지난 1년간 저는 동티모르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동료의 소개로 동티모르국제교회를 나갔고,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함께 모인 청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신앙과 삶을 나눴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힘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동티모르에서의 마지막 주일, 평소와 같이 예배 시작을 준비하던 중 정전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발전기가 있었기에 걱정하지 않았는데, 발전기도 말성이었습니다. 그날은 대림절 첫 주일로, 교회학교 아이들의 성탄절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까지 전기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블루투스 마이크 1개를 가지고 그걸 나누면서 찬양을 부르고, 문자로 보낸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하고, 잔잔히 울리는 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은 <Here I am to worship(빛 되신 주)>으로 '주님이 부르신 여기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풍성한 악기 연주가 없어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에어컨과 전기가 없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모두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모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 이 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오로지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이 채워졌을 때, 동티모르에서 보여

주신 주님의 은혜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무실, 집, 교회에서 기도하던 때와 위기 때나 혹은 좋고 편하고 기쁜 순간 등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찾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티모르에 가겠다고 결심했던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제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생활의 어려움을 모두 감사의 고백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저를 사랑해주시고 저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제 삶도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정전이 이어져서 모두가 더위에 땀을 흘리며 가장 힘들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종종 불안하고 때로 눈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 마지막 주일, 교회에서 선물 받은 동티모르 전통 직물 타이스



⊘ 금요일 모임. 담임목사님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한컷

2025,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은 한 가지

글 전예은 청년(혜성교회)

2025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제가 준비해온 시험이 있습니다. 20대 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게 자꾸 실패가 반복되는 시험입니다. 매년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험인지라, 연말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합격해내고야 말겠다는 욕심을 자극하는, 말하자면 제 일생의 과제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늘 저를 움아매는 멍에가 되었고, 그래서인지 늘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저는 분명한 '실패자'였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반복되는 시간에 결국 저는 무기력한 포기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도전하는 목표 자체가 무서워져서 실패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비겁한 인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겁쟁이로 웅크리고만 있던 저를 따스하게 안으시고 품으셔서 마침내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

다. 미련하고 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이제 저는 다시 새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합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제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너는 너의 어떤 것들을 성장시키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조금이라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무기력과 절망과 패배감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끝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사랑 속에 있기에 인내하며 용감하게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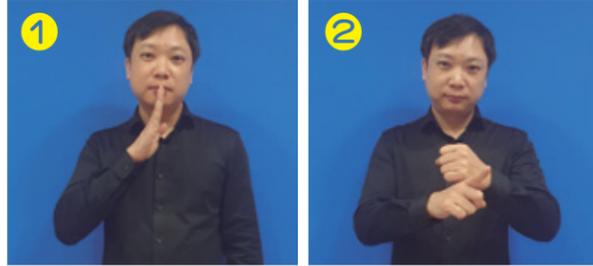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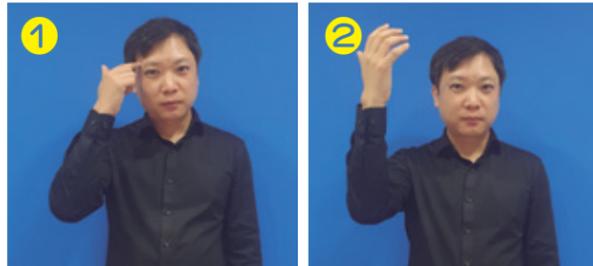
수어

수어통역사 신철승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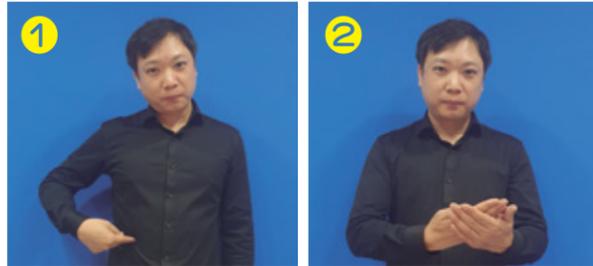
진리



영혼



회개



거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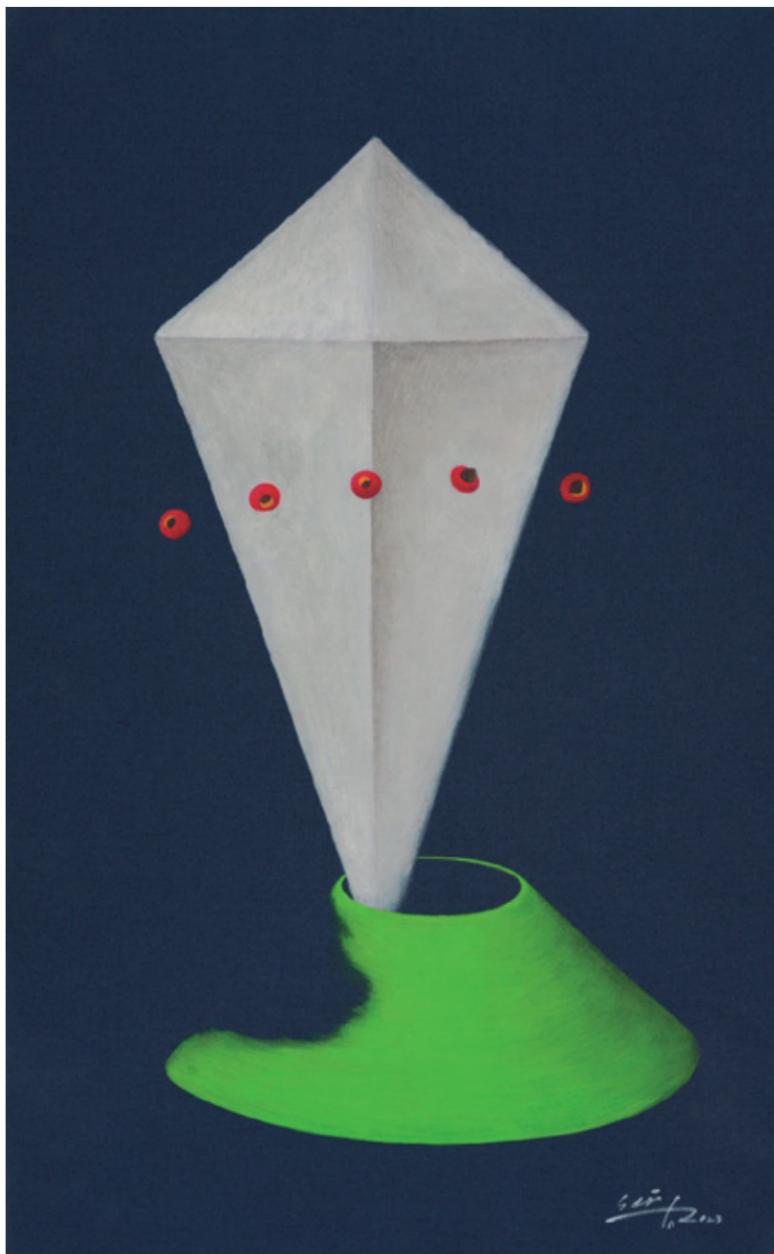
수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에서 연재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 및 호응을 기대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
 제공됩니다.

문화 & 독자 마당





사소한 증명

서로 연관 없는 사물들이 한 군데 모여 그림이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도 한 군데 모여 삶이 되지요. 당신의 삶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합니다.

김세린 작



김종철 집사 베이스 기타, 깊이를 더하는 매력

글 김형수 기자

1.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게 된 계기

중학생 때부터 줄곧 록밴드 일렉 기타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군악대에서 베이스 기타와 만나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악대 이후 연주자 생활을 마감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재 3부 예인찬양팀과 알파성령수양회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 연주를 다시 하며 즐겁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2. 베이스 기타의 매력과 역할

베이스 기타는 밴드 음악에서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입니다. 일렉 기타, 드럼, 건반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소리가 아니기에 덜 주목받기도 하지만, 베이스 기타가 빠진 음악을 들으면 "왜 이렇게 음악이 허전할까?"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베이스 기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드럼의 리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건반과 일렉 기타의 멜로디를 저음으로 보강하여 음악의 깊이를 더합니다.

3. 연주자로서의 보람과 계획

저는 전문적인 연주자는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예배와 다양한 행사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찬양 "전신갑주를 입으라" 녹음에 세션으로 참여했던 경험은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베이스 기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김유정의 「길」 자기만의 길 -- 운명

글 김은숙 권사(수필가, 필명 김지형)

사람은 태어나서 생이 끝날 때까지 자기만의 길이 정해져 있어 그 궤도로만 가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개척하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일까! 전자가 운명론일진대, 김유정이 운명론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편의 수필 「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짧은 생을 살다 간 비운의 소설가 김유정은 「동백꽃」, 「봄봄」, 「만무방」, 「땡볕」, 「금 따는 콩밭」, 「따라지」, 「소낙비」 등 주옥같은 단편소설을 남김으로 초기 한국문학의 한 획을 그은 작가이다.

그의 소설은 일제하의 우리 민족의 암울한 생활상을 휴머니즘에 기초를 둔 플롯(plot)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그 속에 따뜻한 인정이 있고, 때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토속적이고 정감 어린 언어로 그려낸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주인공들은 그가 살던 강원도 실례마을의 이웃 농민들이었고, 소설이지만 허구보다는 실제로 본 사건이나 실화를 소재로 하여 그 시대 억압받는 농촌이나 도시 하층민들의 비참하고 적빈(赤貧)한 삶을 고발하고 있다.

‘길’이란 단어는 우리 인생행로를 직유나 은유법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이다. 오래전 인상 깊게 보았던 이탈리아 영화 <길(일명 젤소미나)>이나 일본 영화 <철도원>은 길을 주제로 한 명작들이다. 로드무비 형식 안에 굴곡진 삶의 역경을 다의(多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문학작품 중에서 우선 떠오르는 것은 모더니스트 시인 김기림의 「길」과 가깝게는 박이문의 「길」이 있고, 서구에는 저 유명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 있다. 여기에 김유정의 「길」이 더해진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작품들이 있겠으나 다 열거할 수는 없다. 나도 수년 전 길을 주제로 졸작 수필을 발표한 적이 있으니 아마도 한 번 왔다가는 인생 여정을 길에 비유하기에 적합함 때문인 것 같다.

김유정의 짧은 이 수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의 진솔함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29세에 요절하여, 그의 문학적 재능을 다 펼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이리라.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우리 문학계가 더욱 풍성해졌음에는 틀림없다.

“며칠 전 거리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나를 반겨 다방으로 끌어들여 놓고 돌연히 충고하여 가로되 병환이 그러시니만치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걸작을 쓰셔야지요? 하고 꺽꺽 웃는 것이다.”

유정이 작고하기 한 해 전의 일이다. 불치의 병마에 약도 없이 고통 받고 있는 선배에게 이견예의를 벗어나 약을 올리는 것인지 조롱하는 것인지 시쳇말로 싸가지가 없는 젊은이다.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옆에 놓인 얼음냉수를 쭉 마셨다.”



아픈 사람을 꺽아내리고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는 교만에 가득 찬 그 젊은이에게 “그대도 아예 부주의 마시고 성실히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한다. 그러나 “그 순간 무거운 고독과 아울러 슬픔이 등 위로 내리침을 알았다.”

그때 김유정의 심경이 어땠겠는가! 그 시대엔 불치병이었던 폐결핵과 싸우며 찌든 가난에 원고 지조차도 살 수 없었던 그의 비참한 말년을 떠올리면 저절로 가슴이 먹먹해진다.

작년 봄 의사를 찾았을 때, 그해 가을을 넘기기 어렵다고 선고(?)를 내렸으나 요양은커녕 몸을 혹사했는데도 그 가을을 무사히 넘기고 이듬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조하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몸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이야 다만 나는 온순히 그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다.”

여기서 ‘길’이란 정해진 길 -- 오직 운명일 것이다. 의사도 과학도 다 소용없고 오직 운명에만 순종할 것이라고 체념하는 작가의 탄식이 전해져 온다.

“요즘에 나는 헤매던 그 길을 바로 들었다. 비로소 나를 위해 따로 한 길이 옆에 놓여 있음을 알았다. 그 길이 얼마나 멀지 나는 그걸 모른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앞에 와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까지 생명이 꺽이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겠다고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가 죽기 직전 가장 친한 친구 안희남(「금수회의록」의 저자 안국선의 子)에게 병의 고통을 호소하며,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 서적을 번역할 테니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그 돈으로 닭 한 30마리를 푹 고아 먹고 싶다고 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유정! 어쩔 수 없이 운명에 고개를 숙인다지만 살고 싶은 의지, 그것은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병마가 앓아간 가까운 천재 작가 ‘김유정’ -- 이 한 편의 수필 「길」을 읽으며 다시 한 번 그의 짧은 운명을 애석해한다.

따뜻한 봄을 느낄 수 있는 파주 헤이리 마을

글 고예님 청년기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 내음과 함께 찾아온 봄이네요.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서 봄이 오기를 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따뜻한 봄기운을 어디서 느끼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다가 파주 헤이리 마을에 가기로 했어요. 헤이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예술적인 분위기가 봄과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헤이리 마을에서 볼 수 있는 것

헤이리 마을은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건축물로 구성된 것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헤이리 마을 거리를 산책하다 보면, 감각적인 건축물과 개성이 가득한 카페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산책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연과의 멋진 조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이에요. 최근에 다양한 건축물을 봤지만, 기존의 자연 공간을 없애고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헤이리 마을의 건축물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지킬 수 있게 지어진 듯했어요.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일반 카페와 달리 통창으로 창을 내어 따뜻한 봄 햇살을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보면서 산책할 때 예술적 영감 또한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이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고 싶으신 분께 추천해 드려요.

단순한 소품샵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시회를 볼 수 있는 썸딩플레이

카페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는 헤이리 마을에는 아기자기한 귀여운 소품샵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많은 소품샵이 있었지만 저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유명한 '썸딩플레이' 소품샵에 방문했어요. 소품샵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눈이 간 것은 따뜻한 봄 색깔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그릇과 컵이었어요. 다른 소품샵에서는 파스텔 톤의 그릇을 쉽게 찾기 어려웠는데 이곳에서는 그릇, 컵,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디선가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헤이리 마을



멋진 건축물을 보는 모미가 있는 헤이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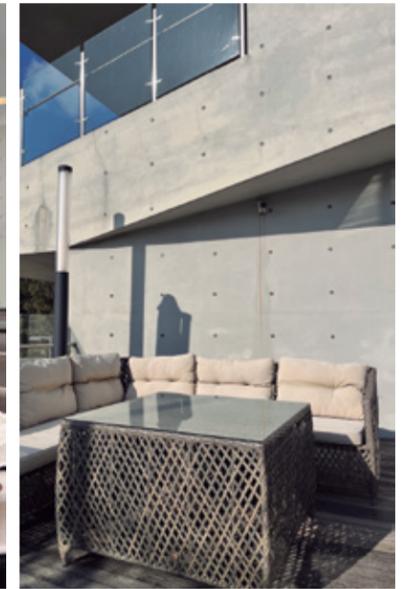
한 소품샵에서 만난 봄이랑 잘 어울리는 파스텔톤 그릇과 컵



시원한 음료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디저트



봄 햇살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



수저 세트 등 주방용품이 파스텔 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봄과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품샵의 전체적인 인테리어였어요. 사장님께서 작은 소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신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에도 소품샵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가끔은 판매 목적으로만 소품을 진열하는 곳도 있었어요. 소품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인테리어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묶어서 판매하여 어색함이 느껴졌고 소품에 대한 몰입감이 떨어졌죠. 썸딩플레이 소품샵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그릇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께서 소품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인테리어 배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자연스러움이 느껴졌던 썸딩플레이 소품샵은 단순한 소품샵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시회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가드너스 카페에서의 휴식

헤이리 마을 거리에는 카페 상권이 활성화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통창으로 유명한 '가드너스 카페'를 방문했어요. 카페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분위기가 달라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계단이었어요. 단순한 이동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소파를 배치해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구성하셨거든요. 이 공간 활용을 통해 사장님께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점이 돋보이기도 했어요.

인테리어를 둘러본 후, 통창이 있는 2층 창가에 앉았는데 따뜻한 봄 햇살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원래도 카페에서 휴식하는 걸 좋아하지만, 벽으로 막힌 공간에서는 온전히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늘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가드너스 카페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여유롭게 휴식 시간을 가지니까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께 가드너스 카페를 추천해 드려요.

아름다운 빛깔을 보면서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고 싶다면 파주 헤이리 마을을 방문해 보세요.

나의 사랑 『광성겨자씨』

글 김진옥 권사

『광성겨자씨』는 1998년 1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했고, 매달 교인들에게 교회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읽을거리가 되었다. ‘광성겨자씨’라는 제호는 교인들에게 공모하여 당선된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출발한 신문의 처음 편집장은 권주리에 집사였다.

등록 교인이 되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 『광성겨자씨』 편집부였다. 편집위원이었던 주부문학교실 강사 김하늬 집사의 권유로 합류하게 되었다. 신문 편집부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편집장은 배철우 집사로 바뀌어 있었다. 2대 편집장과 더불어 지도교역자는 문재진 목사였고, 매주 수요일에 후 작은 도서관에서 편집회의를 이어갔다. 신문은 4면에서 8면으로 성장했고,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눌 때의 열기는 대단했다.



그렇게 신문으로 교회 내의 소식과 지역 소식을 아울러 전하던, 그래서 전도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신문 형태의 『광성겨자씨』가 책자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은 3대 편집장 최경자 집사 때부터이다. 격월간으로 발행했고 당시 지도교역자는 정진희 목사였다. 신문과는 다른 양식으로 변모하며 면을 채워나가는 기쁨과 더불어 지금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디자인 사무실에 가서 글 내용에 들어갈 이미지를 찾아 눈이 빠질 것 같았던 일, 읍지로 인쇄골목을 찾아 인쇄 공정을 확인하던 일 등이 잊지 못할 추억이며 재미로 기억된다. 제호도 ‘겨자씨’로 바뀌었다.

명맥을 이어받은 4대 편집장은 나, 김진옥 권사이다. 아무래도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문외한인 나를 격려하고 참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옛일을 생각하려니 무엇보다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정을 나누었던 많은 편집위원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보고 싶어진다. 『겨자씨』는 덕이동으로 옮겨와서도 계속 이어 교회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글 & 사진 박정미 권사



2019년 설날, 온 가족이 곱게 차려입고 경복궁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았어.

평소에 가족사진을 자주 찍는 편이 아니어서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던 그 날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

시간이 흘러 이제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지만, 조만간 우리 가족 모두 모여 멋진 사진을 찍으러 가자!!

그때는 지금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앞으로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자! 사랑해.

One Korea Crew 새꿈터 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글 손민준 목사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새꿈터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에도 북한 탈주민 아동 청소년들의 아동돌봄시설의 보호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천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OK-Crew'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OKCrew'란 'One Korea Crew'의 약자로, 명칭 속에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2013년 통일민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새꿈터에서 꿈을 찾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꿈터를 퇴소한 후 각자의 꿈을 향해 일자리를 찾아 취업도 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그 통일민 후기 청소년들이 십자가의 길(crossroad)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다가올 통일 한국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OKCrew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통일민으로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경제적으로(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역량 개발비, 학원비, 생활비), 문화적으로(건강한 사회인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활하며 통일 준비할 수 있는 문화 체험)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영어학습교육 지원, 일대일 멘토 상담 지원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첫 모임으로 스키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스키캠프를 통해 멘토들과 소통도 하고 청소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 기사사진



≡ OKCrew 발대식



≡ 단체사진

One Korea Crew 스키캠프를 다녀와서

글 하영경 권사

'굳이 1박 2일? 가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출발하면서부터 1박 2일 내내 든 생각은 어려서 알던 아이들이 아니고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이다."였다.

스키 타임 후에 숙소에서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를 준비하신 선생님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이후 야식 타임은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새해의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심중에 깊이 숨어있던 소망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어쩌면 저렇게 대견스러운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친구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고맙았다.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먼저 곁을 내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곁을 내어주고 함께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One Korea Crew이다. 우리의 선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며칠 전에 나의 멘티에게 특이 왔다. 명절 잘 보내셨느냐고, 눈이 많이 오니 길 조심하시라고. 몇 번을 읽고 또 읽었다.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5 SPRING VOL.54

보내실 곳

102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54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광승현
발행일: 2025년 4월 6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최아인, 태경환, 전하빈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고예남, 김다빈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박길환, 임보미
사진기자: 이종수
편집: 김형수, 이수인
책임편집: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메주꽃 요양원

-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프로그램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www.15779177.co.kr

진료내용

척추·관절·통증 치료



척추·관절·통증치료

든든한병원



든든한병원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내/용

- 정형외과
- 내과
- 건강검진
- 마취통증의학과
- 신경외과
- 가정의학과
- 영상의학과

진료시간 안내 ※ 일요일·공휴일은 휴진

- 평 일 : 오전 9:00 ~ 오후 5:30
- 점심시간 : 오후 1:00 ~ 오후 2:00
- 평일야간진료 : 오후 5:30 ~ 오후 7:30
- 토요일 : 오전 9:00 ~ 오후 1:00
- 내과/건강검진 : (평 일) 오전 8:00 ~ 오후 5:00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2:00

오시는길 안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덕이동 155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 150804-증-75298호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60

대표번호 | 1577-9177 |